

국립
극장

미르

01

2020

NATIONAL THEATER OF KOREA
MAGAZINE MIR VOLUME 360

국립극장 70주년
since 1950

무대, 찰나

예술가의 넋 관객의 몫

죽음을 앞두고 삶을 명징하게 성찰한 철학자 김진영은 말했다.

‘가고 오고 또 가고’ 무대 위 순간도 가고 오고, 또 간다.

하지만 무대 위 예술가와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오래오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살아간다.

7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세월이 흘러가고 극장도, 사람도 변해갔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구로, 명동으로, 그리고 남산으로.
여러 번 거처를 옮기면서
겉모습이 수도 없이 변했지만,
극장에 깃든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니.

무대에 흐르는 열기,
객석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감탄 소리.
만족스러운 표정의 스태프들.
다시, 그 단단하고 매혹적인 찰나를 눈에 담으려
뚜벅뚜벅 극장으로 들어간다.

국립극장 70주년 특집

무대, 할나 01 예술가의 뒀 관객의 뒀

깊이보기 하나

06 국립극장 70년, 되돌아보다

깊이보기 둘

10 사진으로 보는 국립극장 70년사

무대를 있다

미리보기 하나

36 국악으로 건네는 신년사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 음악회'

미리보기 둘

38 극장 옆, 문화 산책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 국립무용단 '설·바람'

되새기기 하나

42 변칙의 발전사에서 존재한 하나의 격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I '격格, 한국의 멋'

1950

2020

길잡이

- 49 1월의 국립극장
- 50 1월의 기대작
- 54 국립극장 이용안내

문화를 역다

- 경계를 넘는 예술
- 58** 톨의 발전,
예술의 궤도를 넓히다

- 안목의 성장
- 62** 상상의 열매,
앞서간 축제
태국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 내일의 전통
- 66** 개성으로 우뚝한 거인
이현정의 달항아리

- 예술서적
- 68** 사랑스러운 양말 예찬론
구달 '아무튼, 양말'

극장을 나누다

- 예술배움
- 72** 박물관에서
공연을 체험하세요

- 공연예술을 전시하다
- 74** 근대 극장의 풍경,
그리고 기생

- 미르 학습지
- 76** 「미르」를 풀어보세요

발행인 김철호 편집부장 김경남 기획 및 편집 이정연·차경주 사진 전강인

ISSN 2287-6383 발간등록번호 11-1371032-000006-06

발행처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통권 360호

편집실 국립극장 홍보팀 | 전화 02-2280-5893 | 이메일 magazine@ntok.go.kr

편집·제작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미르」는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연예술 교양지입니다. 「미르」는 '용齋'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용처럼 힘차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밀리의 서재, 조인스 디지털가판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 70주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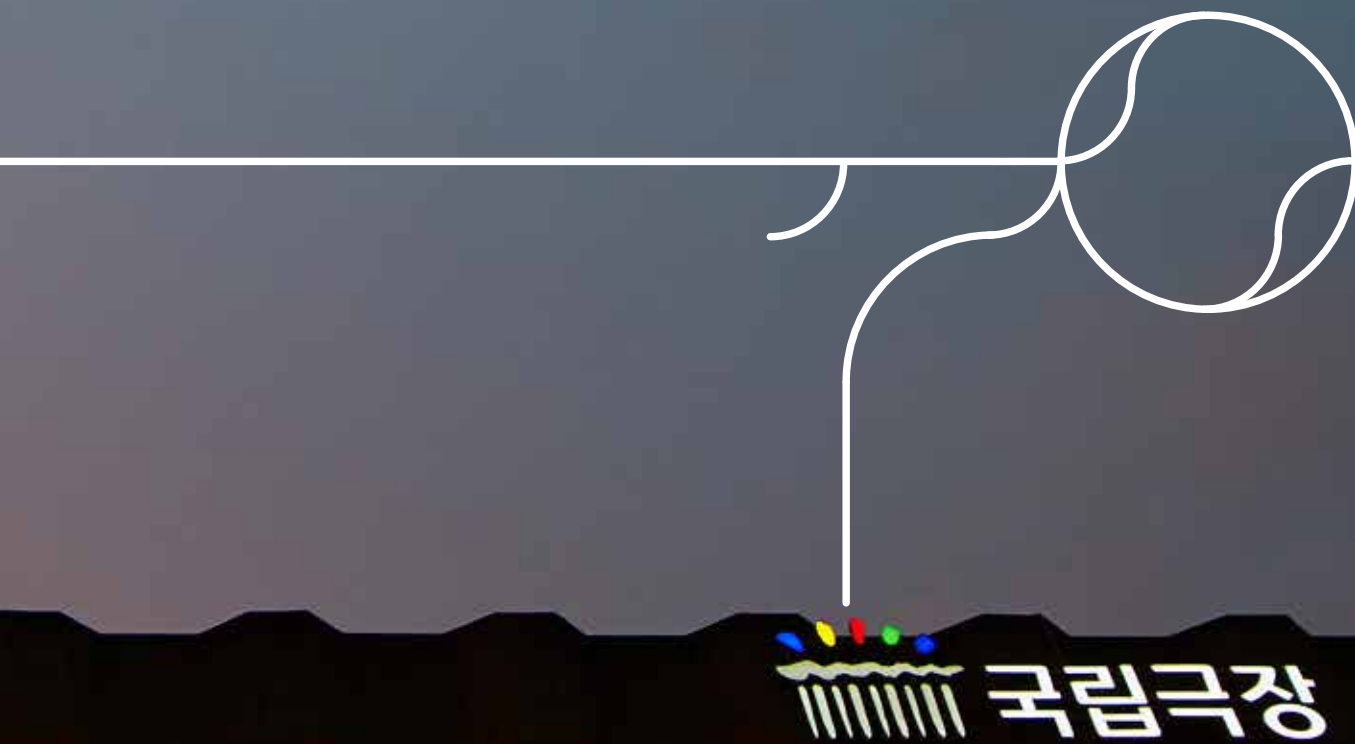


사진 — 박진호 Studio BoB



국립극장 70년, 되돌아보다

지금은 그 존재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70년 전 국립극장이 문을 열었을 때는 아시아, 더 나아가 제3세계에서 최초였고, 그것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 겨우 5년, 정부 수립 2년을 맞은 가난한 우리가 당당히 국립극장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 특히 국민소득 70달러 안팎의 신생 국가였던 터라 변변한 건물 하나 없어서 국립극장도 일제가 지어 쓰던 부민관에 동지를 틀 수밖에 없었지만 정신문화를 숭상해 온 문명국가로서의 면모만은 여실히 보여준 경우이기도 했다.

1950년 1월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제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국립극장'(대통령령 제47호, 국립극장 설치령 제1조)은 2급 축탁의 유치진 초대 극장장이 배우 13명으로 신헌이라는 전속극단을 출범시키고 동시에 '원술랑'이라는 연극으로 팡파르를 울리게 된다. 당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립극장을 대구와 부산에도 설치키로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서울에만 설치된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4월에 개관 작품 '원술랑'에 이어서 창극 '만리장성'을 공연하고, 다음 달 창작오페라 '춘향전'과 무용 '인어공주'에 이어 숨 가쁘게 두 번째 연극 '너우' 공연을 올리며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된다. 그로 인해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와 해방 공간 5년여의 불안정과 혼란을 단번에 불식하고 무대예술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국립극장이 거둔 예상외의 성공은 단순히 문화예술계에 국한되지 않고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순항에도 청신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립극장을 설립한 무리수를 상쇄시키고도 남을만한 효과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국립극장이 연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출발 시점에 창극과 오페스트라 반주의 오페라, 그리고 무용까지 무대에 올린 것은 장차 창극단·오페라단·무용단·교향악단까지 전속으로 두겠다는 의지

의 암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25 전쟁 발발로 국립극장은 3년 가까이 운영이 정지됐다. 1953년 2월에야 겨우 대구의 문화극장에 동지를 틀 수 있었고, 전속단체 없이 근근이 명맥만을 잇다가 휴전과 함께 4년여 만인 1957년 여름에 환도해 명동의 시공관을 국립극장으로 삼게 됐다. 국립극장 설립 7년 만에 일본인들이 세운 건물 세 군데를 옮겨 다닌 셈이다.

어떻든 국립극장이 환도한 만큼 정부로서도 제구실을 하도록 우선 전속 극단부터 조직하게 했다. 다행히 출발 당시 전속단체이던 신헌이 사설 단체가 돼 전쟁 중 피난지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다가 1953년에 환도해 있었기에 그 극단을 끌어들이 신헌과 민극을 두고 환도 기념으로 '신앙과 고향'(1957)을 공연해 안착시킬 수 있었다.

당시 시민들과 연극계에서 국립극장에 거는 기대도 컸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있었다. 첫째 변변한 공연장이 없던 시절, 비록 일본인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가 1936년 영화관으로 지은 명치좌 건물이긴 하지만 위치와 규모 면에서 더없이 좋았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배우들이 단원이 되면 적지만 급료를 받고 연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환도 직후 국립극장은 이질적인 전속단체 구성으로 갈등이 있었던 데다가 수익성도 너무 떨어져 여당 의원들 일부는 폐지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문화계의 지원을 받고 서항석 극장장의 설득으로 가라앉았으나, 원로소설가 박종화 등 문화계 인사들이 국립극장 안정을 강력히 권유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1960년대 초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요동쳤고, 그에 따라 국립극장도 문교부 소관에서 공보처로 이관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는 조건을 달아 극장장은 정부 관리가 맡도록 했다. 연극 전문가의 운영시대가 끝나고 일반 관리가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직제를 바꾸면서 정부는 부대사업의 실천화, 국립극단의 질적 향상, 연극의 5개년 발전계획, 부설 예술단체 결성, 관객 확보 방안 등 그럴듯한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공보처 2급 관리들이 극장장을 맡으면서 국립극장은 공보처의 유배지로 여겨지며, 2년 동안 다섯 번이나 책임자가 바뀌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국립극장장으로 간다 함은 곧 관리로서는 출세길이 막히는 것이라 보고 모두가 기피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조직된 전속극단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내외의 여망에 따라 당대 최고의 배우라 할 장민호·나옥주·옥경희·김향이 등이 집결해 ‘안네 프랑크의 일기’(1960) 등을 무대에 올려 인기를 모아가게 된다.

이 시기 국립극단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당면했는데, 마침 아서 밀러 등의 극작가와 엘리자 카잔 같은 연출가가 지배하던 미국 브로드웨이 연극을 시찰하고 온 중진 연출가 이해랑의 조언으로 안정적인 극단 운영과 리얼리즘을 기조로 한 전문 연극을 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찾게 됐다. 바로 이것이 국립극장이 주류 연극의 산실로 자리 잡는 배경이 됐다.

이러한 국립극단의 입장은 1960년 실험극장을 시작으로 생겨난 민중극단·동인극장·자유극장·여인극장·광장·산하 등 이른바 동인제(同人制) 시스템 극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하유상과 ‘산불’로 이목을 끌며 화려하게 등장한 신에 작가 차범석이 창작극을 주도하면서 뒤를 이은 김의경·이재현·노경식·윤조병 등에도 계승돼 초창기 유치진과는 또 다른, 전후의 새로운 리얼리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더구나 동인제 시스템 극단들의 번역극을 보면 당시 아서 밀러를 비롯해 장 아누이·막스 프리슈·프리드리히 뉘렌마트·에드워드 올비·손오케이시 등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 선호됐음을 알 수 있다. 국립극장에서 연출을 담당했던 인물들, 즉 이해랑을 비롯해 박진·이원경, 무대미술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김정환·장종선·최연호 등이 리얼리즘 신봉자였던 사실에서도 국립극장의 방향이 어떤 것이었지 잘 알려준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국립극장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무대예술의 진흥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지만 전쟁 등을 거치느라 실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국립극장이 명동에 자리 잡으면서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오재경 공보장관의 뜻에 따라 당초의 목표대로 정부가 1962년 1월 15일에 전속단체 설치 근거(각령 제379호)를 공포하고 곧바로 국립극극단을 필두로 국립오페라단·국립무용단을 두게 됐다. 그리고

1969년에는 국립교향악단까지 두게 된다. 때마침 음악대학 출신의 공무원 김창구가 극장장을 맡았기 때문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리하여 국립극장에는 연극인들뿐 아니라 문인·음악가·무용가·국악인 등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였고, 그들의 팬까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돼갔다. 그러자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서 남북 대결을 벌이고 있던 정부는 문화도 북한에 뒤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남산 일대에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을 추진케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북한의 대형 문화 공간인 2,300석의 평양대극장(1960년 개관)이라든지 800석의 모란봉극장(1958년 개수) 등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따라서 1969년에 완공할 목적으로 1967년 10월, 장충동에 국립극장 건물 착공에 들어가면서 명동 국립극장은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매각이 쉽지 않았을뿐더러 주요 활동 무대를 잃게 된 재야 공연단체들의 저항으로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한 실정에서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접은 뒤 장충동의 신축 국립극장을 개관하고 1973년 10월에 ‘성웅 이순신’을 개관 공연으로 올린 후에도, 1975년까지 명동의 국립극장을 존속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신축 국립극장은 국립가무단과 합창단, 그리고 발레단까지 두면서 전속단체가 8개나 있었고 예산·무대 등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와 지나치게 큰 규모는 불필요하기도 했다. 8개 단체를 거느리는 대형 극장에 걸맞은 인적 구성도 해야 했으므로 운영요원 128명과 전속단원 348명에 임시직원까지 합치면 529명으로 단번에 폭증했다. 그러한 장충동 신축 극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위치에서부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공무원 극장장들이 계속 바뀌면서 문화의 균점화라든지 국제교류 등 새로운 포부를 열심히 밝히곤 했지만 성취되는 것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극장장이 거의 한두 해 간격으로 계속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정권이 바뀌고 국립극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즉 제5공화국 정부는 문화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령 제10589호에 따라 국립극장 직제를 일부 개정해 ‘극장장을 공연분야의 전문가로 보충할 수 있다’라고 내세우고 극장장과 공연과장을 별정직으로 만들어 민간 전문가를 영입토록 했다. 그 첫 혜택을 중견 연출가 허규가 누리게 됐다. 허규 신임 극장장은 레퍼토리 선정위원회와 운

영위원회를 구성, 전속단원들의 계약제 실시, 단체장의 3년 임기제와 겸직 금지, 연출자의 독립성 보장 등 혁신책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펼쳐나가기도 했다. '전통연희의 현대적 계승'을 내걸고 극단 민예를 이끌어온 연출가 허규 극장장은 효율성의 극대화 등을 내세우며 대극장보다는 소극장 공연에 치중했고, 600석의 야외무대를 만들어 마당극을 하도록 했으며 창극을 대형화하고 판소리의 공연 횟수도 대폭 늘린 바 있다.

특히 장충동 이전 10주년을 맞아서는 소극장의 경우 레퍼토리 시스템, 그리고 대극장은 교체 순환 방식을 택함으로써 상설공연 체제를 갖도록 해 국립극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이는 국립극장의 정체를 깨뜨려보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이었는데, 역시 예산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험극장의 창립 멤버였고 민예까지 운영하는 등 연출가답게 극장에 아카데미즘을 도입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문화 올림픽이 되는 데 국립극장이 그 전초장이 돼야 한다는 자세로 전통예술의 국내외 공연을 대폭 확대하는 면모도 보여줬다. 물론 동구권 등의 해외 단체 공연도 적잖게 유치했다. 국립극장이 오랜만에 제구실을 한 셈이다.

그런데 국립극장이 남산에 뿌리를 내리면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내외의 여론에 따라 공연장으로서의 특장의 중요성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곧 국립극장이 너무 많은 단체를 두고 있어서 공연장으로서의 개성이 약한 데다가 공연 횟수도 조정하기 쉽지 않고 여러 곳에 대형 극장이 세워져 있으니 전속단체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1977년부터 조금씩 전속단체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단체가 가무단이었고(1976년 재개관한 세종문화회관으로 이관), 1981년에는 교향악단이 KBS로 이전됐다. 전속단체가 8개에서 6개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립극장을 이끌어가야 하는 민간 전문가는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미숙하고 힘이 부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조차 극장장을 노련한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허규를 끝으로 원상으로 되돌리게 되고, 그동안 국립극장에서 행정을 도맡아 했던 2급 공무원 전영동이 뒤를 잇게 됐다.

그러나 1990년 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부가 새로 발족되고 국립극장이 공보처 소속에서 벗어나면서 전영동은 1년 만에 원대 복귀했고, 외교부 경력의 윤탁이 새로 부임한다. 그는 윤선도의 후예답게 문화 감각을 갖추고 있었기에 '움직이는 국립극장'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좋은 창작극이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포 밀집 지역 순회공연, 지방 공연예술 발전, 청소년 및 근로자를 위한 공연 행사 증가 등을 내걸고 열정적으로 일을 벌여나갔다. 그의 공로는 단연 여러 명의 신진 극작가를 발굴한 창작극 육성 사업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근무제 또는 정년제 등으로 극장장 임기가 2~3년에 머물며 따라 장기적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극장장이 교체될 때마다 예술감독제와 같은 발전책도 생겨났다. 예술감독제의 탄생도 실은 그 시기에 국립극장의 법인화라든지 시즌 프로덕션제, 독립채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국립발레단장을 맡은 중진 무용가 김혜식이 부임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꾀한 점이다. 유명무실하던 오디션을 철저히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발레단 후원회까지 조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립극장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눈에 띄게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령 한민족예술제의 확대 실시라든지 문화광장 마련 등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극장의 큰 변화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상으로 문화 정책을 일가견이 있던 김대중 정부는 문화사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설정할 만큼 진취적이었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표어를 내걸고 국립극장을 과거 영국에서 시도한 바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바꿨다. 국립극장은 극장장도 문화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공모에 들어갔고 1999년 11월에 연극인 김명곤을 새 극장장으로 선출했다.

김명곤이 극장장을 맡으면서 국립극장은 군살빼기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미 전에도 거론된 바 있던 극장의 특장화 작업으로서 일종의 전속단체 재조정이었다. 과거에는 변변한 극장이 없었기 때문에 국립극장이 여러 단체를 끌어안아야 했지만 예술의전당까지 세워졌으니 분산해서 각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부가 곧바로 1999년 가을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정기 국회에 회부해 국립극장 전속단체들을 별도 법인체로 만들게 했으며 예술의전당도 재단법인에서 특별법인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러한 법 정비에 따라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 3개 단체가 법인화돼 2000년에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떠나가게 됐다.

국립극장에는 극단·무용단·창극단·국악관현악단, 4개 단체만 오롯이 남게 됐다. 이러한 국립극장의 재편은 설립 50년 만인데, 그동안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의 무대예술, 즉 연극을 비롯해 한국무용·발레·국악·오페라·교향악 등이 안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립극장이 50년 만에 설립 당시와 가장 가까울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교육적 기능의 확장 같은 극장의 순기능을 찾으려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였다. 특히 행정직원의 수를 반으로 감축했다든지, 팀 체제로의 전환, 기획력과 마케팅의 강화 및 디지털화 등은 선진적인 변화였다. 게다가 ‘국립극장 봉사헌장’ 발표 역시 구태를 벗어나 예술이야말로 현대적인 서비스 상품이라는 인식을 알린 것이어서 흥미를 끌만했다. 국립극장이 30여 년 만에 건물 전체의 쇄신에 들어가면서 제도의 선진화도 꾀했는데, 이를테면 단장제를 예술감독제로 전환하고 창작 전권을 위임하기도 했다.

국립극장을 크게 변화시킨 김명곤이 임기를 마치자 중진 무대미술가 신선희가 바통을 이어받아 국립극장을 ‘한국적 창작 공연을 만드는 유일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나섰다. 즉 그는 전임자가 벌여놓은 여러 가지 일을 정비하는 한편 과거 국립극장이 제작한 우수 작품을 발굴해 상설 레퍼토리화하는 것과 아울러 ‘국립극장 자료실을 연구실이나 연구소로 확대해 공연을 미디어 콘텐츠로 바꿔 유통시키고 옛 것을 복원하는 기능을 하려 한다’고 했다. 그가 벌인 여러 가지 사업 중 업적으로 남을 만한 일은 역시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과 공연예술박물관을 만들고 야외극장을 쓸만한 공연장으로 꾸민 것이다.

공연예술박물관이야말로 신선희 극장장의 가장 큰 업적인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후임자들이 더는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선희의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 임연철이 부임해 국립극장에서 부족했던 마케팅, 홍보, 그리고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시민의 예술교양 강화를 통한 관객층 확대가 궁극적 목표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립극단이 법인화돼 용산구 서계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극의 맥을 이어온 전통 있는 국립극단이 그 역사를 함께해 온 국립극장을 나가게 된 것이다. 국립극장은 한 나라의 역사·전통·정서, 그리고 꿈을 농축 공연예술화해서 보여주는 신성한 창이다. 그래서 국립극장을 가리켜 한 나라의 얼굴이고 자존심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고대 회랑의 극장 발전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극은 국립극장의 알파와 오메가다. 1950년 국립극장 설립도 ‘연극 문화의 향상과 민족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 밖에 없는 국립극단을 독립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립극단은 제단법인화된 지 5년 만에 명동예술극장과 통합돼, 명동예술극장을 전용극장으로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속 단원 없이 시즌 단원제로 운영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1680년 설립된 프랑스의 국립극장 코

메디프라랑세즈가 지금까지 전속 단원을 두고 작품 개발에 주력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립극장에 극단이 없고, 극단에 전속 단원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립극장은 창극단·무용단·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단체를 두고 있으며, 그중 장기 공연할 수 있는 단체는 없다. 신체 구조상 판소리를 오래 할 수 없고, 춤도 몇 달씩 출 수 있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국립극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계속한 극장장이 예술의전당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쌓은 안호상 극장장이었다. 그는 2012년 정월에 취임하자마자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국립극장에 레퍼토리시즌제를 도입해 단번에 고정 관객층까지 만들어내는 수완을 보여주었고, 극장장의 운영 능력에 따라 공연장의 성쇠가 좌우된다는 하나의 좋은 사례도 제시했다.

그리고 신축 당시부터 대극장의 구조상 결함으로 애를 먹던 차에 해오름극장이 40여 년 만인 2018년 4월에 리모델링에 들어갔고 2018년 9월에 김철호가 새로 극장장으로 취임했다. 국립극장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악인 출신을 선택한 것은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 창극·한국무용·국악 관현악 등 전통예술 단체만 3개를 거느리는 극장 운영을 국악인이 맡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극장 역사 70년 동안에 34명의 극장장이 드나들었다는 것은 국립극장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34명 중에서도 서형석 11년, 허규 8년, 김명곤 6년, 안호상 5년을 합치면 30년이므로 40년 동안에 극장장이 29명이나 바뀌었다는 이야기이며, 각각 1~2년 남짓 근무한 것이 된다. 그뿐이 아니고 극장장의 일반직 고위공무원(2급, 일반임기제)이라는 직급 또한 설립 당시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립극장의 위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2천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문화적 성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번듯한 제2국립극장 건립과 국립극단의 활성화다. 예술 창작의 산실인 공연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문화가 융성하고 사회 전체가 성숙하기 마련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해오름극장 리모델링과 더불어 제2국립극장 건립과 함께 제2국립극단을 만들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글 — 유민영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연극평론가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국립극장 70년사

1950



1950년 창립준비회의

7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국립극장이 다져온
굴곡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되짚어본다.

2020



1950년 4월 29일 국립극장 창립

국립극장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0년 4월 29일 개관했다. 극장 건물은 1935년 건립된 1,800석 규모의 부민관(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이며, 초대 극장장은 유치진이였다.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극장은 산하에 극단 외 교향음악단·합창단·가극단 및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광복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속 극단만 우선 출범했다. 그중 실질적인 운영은 신험 하나만 가능했다.

구 부민관 건물





개막공연 '원술랑' (1950)

1950년 4월 30일 개막공연 '원술랑'

국립극장이 첫 공연으로 올린 작품은 '원술랑'(유치진 작·허석 연출)으로 신라 시대 김유신의 아들 원술의 이야기를 다룬다. 공연은 1주일 만에 5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흥행했다. 당시 서울 인구가 40여만 명이었는데, 그중 5만 명이 '원술랑'을 관람했다는 것은 신극사에서 길이 남을만한 사건이었다.



1950년 6월 25일 개관 58일 만에 기능 정지

연극 공연에 이어, 두 번째 무대로 국극사를 초청해 창극 '만리장성'을 무대에 올리고, 창작오페라 '춘향전'과 무용 '인어공주' 등을 선보였다. 이어 신협의 제2회 공연인 '뇌우'(조우 작·김광주 역·유치진 연출)는 관객들의 요청으로 앙코르 공연까지 했고, 관람객은 무려 7만 5천 명가량이었다. 국립극장은 개관 한 달여 동안 단 서너 편의 공연으로 서울 시민의 정신적 위안처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 뒤이어 제 3회 공연을 준비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 개관 58일 만에 기능 정지 상태에 접어들었다.

1957년 6월 1일 서울 명동 시공관

대구에 임시로 내려가 있었던 국립극장이 만 4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온다.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만에야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극장으로 사용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데 있었다. 기존의 부민관 자리는 국회가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을 새로 지을 형편도 아니었다. 가까스로 명동에 있던 시공관 건물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극적인 재개관을 한다. 전속단체로는 전쟁 중 사설 극단으로 활동하던 신험 단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국립극단을 새롭게 꾸린다. 명동에서 연 첫 공연은 '신앙과 고향'(카를 쇠렌헤어 작·서향석 역·홍해성 연출)이다.



1953년 2월 13일 대구 문화극장

피난을 간 상황에서 국립극장은 어렵사리 대구 문화극장을 인수해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2대 극장장으로 서향석이 임명되고, 재개관 작품으로 '야화'(윤백남 작·서향석 연출)를 무대에 올린다. 하지만 전속단원도 없는 상태로 3~4일 만에 무리하게 올린 공연은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전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여러 비판과 논란에 휩싸인 국립극장은 명맥만 유지할 뿐 별다른 활동 없이 오랜 공백기가 이어진다.





명동 시공관 건물을 사용하던 시절의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영은 살아있다'

1962년 1월 15일 국립극단·국립무용단·국립오페라단 창단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국립극단 이외에 국립국극단(현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오페라단이 창단된다. 초대 단장에는 국립국극단에 김연수, 국립무용단에 송범, 국립오페라단에 이인범이 각각 임명된다. 명동 국립극장 재개관과 맞물려 창단 공연으로 올린 작품은 창극 '춘향전'(박광 각색·김연수 지도), 무용 '백의환상'(임성남 구성·안무)·무용 '영은 살아있다'(송범 구성·안무)·무용 '쌍곡선'(임성남 구성·안무), 오페라 '왕자호동'(유치진 작·장일남 작곡·오현명 연출)이다.





1962년 3월 21일 국립극장 재개관, 명동 국립극장

1961년 11월 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시공관은 이제 국립극장 단독으로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광복과 함께 15년 동안 거의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돼 있었다. 그해 12월 총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객석·무대·냉난방시설·화장실·로비 등을 전면 개수했다. 대대적인 보수를 마치고 네 개의 전속단체와 전용극장을 갖게 된 국립극장은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난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됐다.





남산 국립극장 착공현장

1967년 10월 12일 신축 국립극장 착공

정부의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구상이 발표되고, 장충동에 지하 1층·지상 3층의 새 국립극장을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종합민족문화센터는 처음에 국립극장·국립도서관·국립국악원 등 총 10개 기관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수차례의 계획 수정 끝에 장충동에 국립극장과 국악사양성소 2개소만 들어서게 됐다.

1969년 3월 8일 국립교향악단 창단

국립극장은 KBS로부터 교향악단을 인수해 국립교향악단을 꾸렸다. 초대 단장은 이용상, 상임지휘자로 임원식을 임명하고 90명 규모의 단원으로 창단 첫 연주회를 열었다. 전신인 KBS교향악단은 1956년 9월 3일 서울방송교향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바 있다.



국립교향악단

1972년 1월 11일 예그린악단 인수

뮤지컬 공연을 해오던 민간단체 예그린악단이 국고보조단체로 지정되면서, 국립극장과 관계를 맺었다. 1973년 국립가무단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이듬해 첫 공연 '대춘향전'을 무대에 올렸다. 예그린악단은 민속예술을 지향하며 1961년 유력 정치인과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탄생했다. 수차례의 해산과 재창단을 거듭하다가 1966년에는 초기 한국 뮤지컬의 대표작이라 할 '살짜기 읊서예'를 공연하기도 했다.



국립가무단 '대춘향전'(1974)



국립합창단

1973년 5월 1일 국립합창단 창단, 국립무용단·국립발레단 분리

1973년 신축 국립극장 개관을 앞두고 국립극장은 전속단체를 크게 개편했다. 새롭게 국립합창단이 창단되고, 1962년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으로 분리돼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국립합창단 단장에는 나영수, 국립무용단 단장은 송변, 국립발레단 단장은 임성남이 각각 임명됐다.



국립발레단 '지귀의 꿈'(1973)

1973년 10월 17일 신축 국립극장 개관, 장충동 시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축 국립극장이 6년여의 긴 공사 끝에 1973년 10월 17일 개관을 맞이했다. 대극장은 1,500석, 소극장은 330석 규모였다. 이와 함께 전속단체도 국립극단·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교향악단·국립가무단·국립합창단으로 8개가 됐다. 직원도 3배 이상 늘어나, 단원과 직원을 포함해 총 529명이 었다. 개관 공연으로 국립극단의 '성웅 이순신'(이재현 작·허규 연출)이 무대에 올랐다.

신축 국립극장 개관 공연 '성웅 이순신'(1973)





장충동에 완공된 국립극장 전경

1977년 4월 1일 「월간 국립극장」 창간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미르」의 시조는 1977년 4월 창간된 「월간 국립극장」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책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극장예술」 「국립극장 소식」 「국립중앙극장」 「갈채」라는 이름을 거쳐, 용띠 해이던 2000년 4월부터 국립극장「미르」로 불렸다. ‘미르’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용처럼, 우리 민족 문화예술을 지키면서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1977년 11월 2일 서울시립가무단 재창단

국립가무단이 서울시로 이관되고, 50명 규모의 서울시립가무단(현 서울시뮤지컬단)으로 재창단했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활동하면서, 총 9회의 공연을 올린 바 있다. 마지막 공연은 ‘시집가는 날’(오영진 작·허규 연출)이다.



1981년 8월 1일 국립교향악단 KBS로 이관

굴곡 많던 국립교향악단이 발전적으로 해체돼 KBS로 다시 이관됐다. 그간 연 14회의 정기연주회와 4회의 실내악 연주회를 해왔다. 마지막 공연은 7월 ‘제215회 정기연주회’(박은성 지휘)였는데, 안타깝게 냉방기 고장으로 초만원의 관객들과 연주자들이 더위에 애를 먹었다.



실험무대에서 열린 장산도 씻김굿 장면(1981)

1981년 10월 28일 실험무대 개관

3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마당식 소극장 실험무대가 개관했다. 8월 초 전문 예술인 허규 극장장이 취임한 후, 실험적이며 전통적인 공연물을 상연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이곳은 국립교향악단이 KBS로 이관되기 전, 연습실로 쓰던 대극장 지하 공간을 개조한 것이었다. 개관 기념 공연으로 장산도 씻김굿·밀양5복춤·승무·진도 다시라기·봉산탈춤 등이 상연됐다.

1982년 5월 15일 놀이마당 개장

공연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 극장 광장 한 모퉁이에 야외 놀이마당을 개장했다. 총 244평, 600석 규모의 계단식 노천극장은 1미터 70센티 높이의 경사면에 6개의 계단을 만들었으며 계단 한 줄에 100명씩 앉을 수 있었다. 야외 놀이마당은 전문 예술인뿐만 아니라 학생 등에게 무료로 대관됐고, 모든 공연을 무료로 공개했다. 첫 공연은 '제13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으로 연일 많은 관람객이 밀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국립극장 놀이마당

5월15일 개장

본격야외공연장으로
처음, 전통마당놀이
원형 되살리는 계기

● 놀이마당은 무엇인가?
국립극장 마당극장인 '놀이마당'은 전통마당놀이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전통마당놀이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전통마당놀이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 놀이마당의 특징
1. 계단식 노천극장
2. 600석 규모의 관람객 수용
3. 전통마당놀이 원형 복원



놀이마당에서의 '제13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1995)

1995년 1월 1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박범훈을 단장으로 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새롭게 창단됐다. 생활 속에 함께하는 국악, 세계음악과 나란히 하는 국악을 추구했으며, 국악기 개량 사업도 의욕 있게 추진했다. 개량 국악기를 사용한 '창단연주회'(박범훈 지휘)가 6월 대극장에서 펼쳐지며, 여러 전속단체와 협력해 악·가·무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음악회를 연출했다.

2000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체제 변화

국립극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체제를 바꾸며 민간 극장장 시대를 맞이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자율성을 갖는 행정기관으로, 기관장은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 성과를 책임지게 된다. 김명곤 전 극장장을 시작으로, 신선희·임연철·안호상, 현재의 김철호까지 다섯 명의 문화전문가가 극장장 자리에 올라 국립극장의 변화를 주도했다.

2000년 2월 1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독립

전속단체로 활동하던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해 홀로서기에 나섰다. 국립극장을 떠난 세 단체는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자리를 옮겨 예술 활동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국립극장은 이들 단체와 지속적으로 공동 작업을 펼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2000년 5월 대극장과 소극장 새 명칭 얻어

개관 50주년을 맞아 대극장과 소극장이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 일반인 공모를 거쳤으며, 248명이 819건에 이르는 아이디어로 호응했다. 새 명칭은 극장 내 심사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의견 수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선정됐는데, 무려 60퍼센트에 이르는 투표율로 최종 명칭이 당선됐다.

2001년 5월 23일 별오름극장 개관

별관 건물 내에 150석 규모의 소극장 별오름극장이 개관했다. 자유로운 창작 정신과 새로운 공연 양식 개발을 위한 무대로, 1981년 대극장 지하에 개관한 실험무대를 이어받아 지어졌다. 별관 건물은 1967년 준공돼 국악사양성소(현 국악중·고등학교)로 사용되다가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이 잠시 입주했던 곳이다. 한편, 2000년 4월에는 별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보수하기도 했다.



2002년 6월 11일 하늘극장 개관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 사이에 하늘을 향해 열린 야외 원형극장, 하늘극장이 만들어졌다. 1982년 야외 놀이마당이란 이름으로 개장돼 사용하던 공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 극장은 600여 개의 객석과 이동식 침단 조명과 음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거듭났다.

2004년 10월 29일 해오름극장 새단장

해오름극장이 새단장을 마쳤다.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 외형은 살리되, 무대와 객석, 로비 등을 전면 수정해 현대적 공연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25.5도 높아진 객석 경사도와 엇갈린 좌석 배치로 관객 시야 확보에 힘썼으며, 좌석 수도 1,522석에서 1,563석으로 늘어났다. 68대의 스피커를 새롭게 구비해, 어느 좌석에서나 입체적으로 음향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로비 중앙에 있던 계단을 없애 로비 활용도를 높였으며, 극장 외부 전면도 유리로 교체했다. 81평 규모의 서가 시설을 갖춘 공연자료실을 해오름극장 4층에 설치해 관객 편의를 도왔다.

2006년 4월 별오름극장 객석 새 단장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실험과 창작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별오름극장의 객석 전체를 수리했다. 2003년 로비·객석·무대·분장실 등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공사가 이뤄졌지만, 낡은 객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새 단장에 들어간 것. 전통 수납식 객석 74석과 이동식 30여 석을 설치해 무대 공간 활용이 더욱 용이해졌다.



재개관 후 하늘극장



2008년 4월 30일 KB청소년하늘극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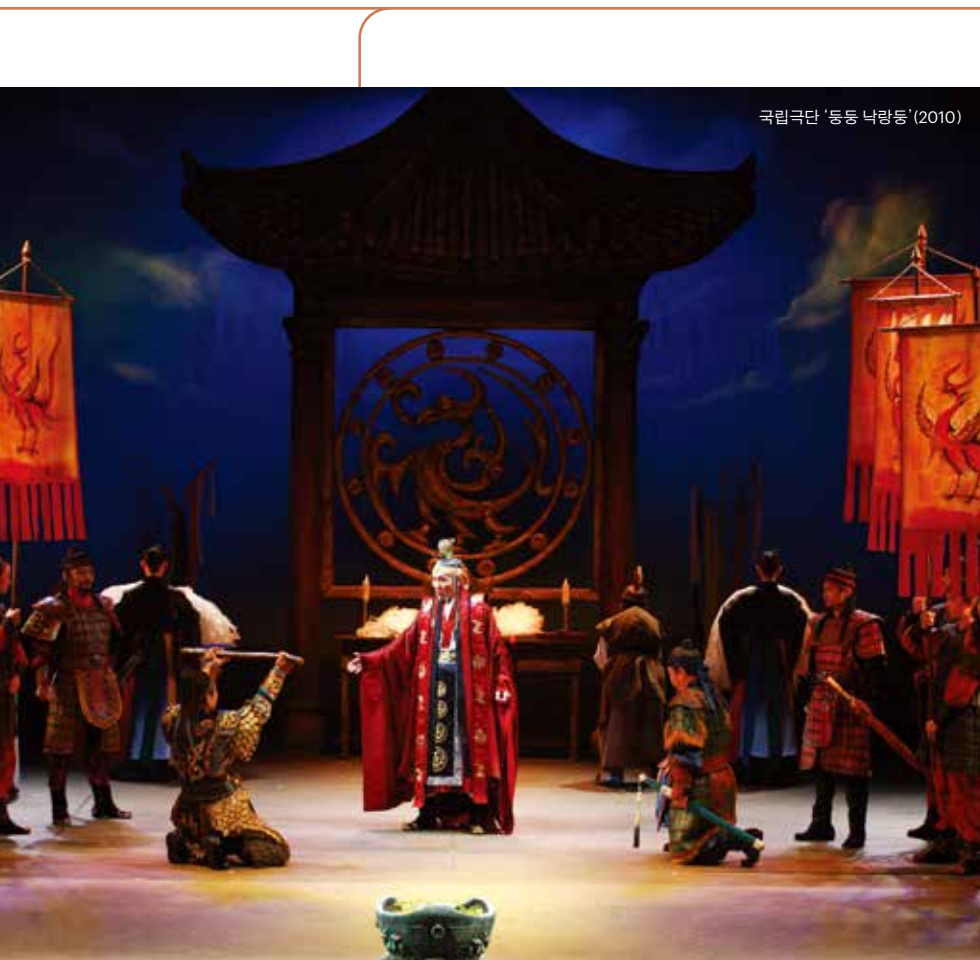
KB국민은행의 협찬을 받아 야외 원형극장이던 기존 하늘극장이 돔형 극장으로 새 단장했다. 13미터의 지상 2층 높이 건물에 씌워진 은빛 돔 천장은 네 개의 부채꼴로 갈라지며 1분 이내에 열려 하늘을 활용하는 연출이 가능해졌다. 하늘극장에서 KB 청소년하늘극장으로 명칭을 바꾼 새 극장의 첫 공연은 '2008 청소년 공연예술제'가 장식했다.





2009년 12월 23일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 전문박물관인 공연예술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공연예술 자료의 유실을 막고 수집·보존하며 전시·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 설립은 공연예술계의 숙원이었다. 3년간의 긴 준비 끝에 개관한 공연예술박물관은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기획전시실·아카이브실·수장고·교육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공연예술박물관이 소장한 자료는 31만여 점. 영상·음향·사진·도서 등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직접 방문·이용 가능하며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돼 있다.



2010년 4월 30일 국립극단 법인화

국립극단이 창단 60년 만에 법인화해 독립했다. 1950년 국립극장 출범과 동시에 유일한 전속단체로 출발한 국립극단은 국립극장과 역사를 함께하며 250여 편의 공연을 올렸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국립극단은 ‘동동 낙랑동’을 마지막으로 용산구 서계동으로 둥지를 옮겨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V '내셔널&인터내셔널'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초연)



국립창극단 '변강쇠 짝고 웅녀'
(2013-201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초연)

2012년 9월 5일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제 도입

국립극장이 국내 공공극장으로는 처음으로 '레퍼토리시즌제'란 명칭의 시즌제를 도입했다. 시즌제란 극장이 기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기획하고 관객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관객은 관람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고, 극장은 작품 제작에 매진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양질의 레퍼토리 축적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획기적 변화였다. 개막작은 국립창극단의 '수궁가'(아힘 프라이어 연출)였으며 2012년 9월 5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8개 국립 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총 79편의 공연이 이어졌다. 시즌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단체의 공연 편수와 횟수, 관람객 수 모두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전속단체를 보유한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거듭됐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도전적 신작을 발표, 전통의 현대화 작업에 앞장섰으며 동시대성을 갖춘 우수 작품들을 대거 제작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관객층을 유입, 국립극장은 어느때보다 활기차졌다. 프랑스 테아트르 드 라 빌, 칸 댄스 페스티벌 등 매년 해외의 저명한 극장과 축제 무대에 오르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기도 했다. 국립극장은 현재 아홉 번째 시즌을 진행 중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동시대적 창작의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평가받는다.



국립무용단 '목향'
(2013-201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초연)

2014년 2월 19일 달오름극장 재개관

달오름극장이 극 장르 전용 극장으로 전면 개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했다. 기존 407석에서 512석으로 객석 수가 늘어났고, 경사각을 좀 더 가파르게 만들어 관객의 시각선을 향상시켰다. 무대 면적을 2배 이상 넓히고 무대 깊이를 14미터에서 19미터로 늘리는 반면, 객석과 무대의 거리는 좁히고 돌출된 무대를 따라 객석을 에워싸게 만들어 공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음향 잔향 시간을 늘려 관객이 배우의 육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변화였다. 무대 옆 공간, 프롤시니엄 높이 등도 확장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개선, 공연자와 관객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한편, 달오름극장은 2005년 외관을 통유리로 두르는 등 로비 개선과 객석 교체, 무대 설비 보강 등 한 차례 개보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2016년 10월 16일 뜰아래 연습장 건립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를 위한 새로운 연습장이 생겼다. 문화광장 아래에 위치한 뜰아래 연습장의 이름은 국립극장 직원과 전속단체 단원을 대상으로 한 명칭 공모를 통해 지어졌다. 전속단체의 규모와 공연 횟수에 건주어 연습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장르별 특성에 맞춘 설계로 단원의 기량 향상과 작품의 완성도에 크게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2018년 4월 1일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착공

1973년 개관 후, 한국 공연예술의 본거지로 수많은 관객을 만났던 해오름극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준비에 한창이다. 해오름극장은 장충동에 개관할 당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극장으로 주목받았으나, 40여 년간 사용되며 시설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다양한 현대 공연 기법 구현을 위한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불편했던 객석의 시야 문제를 개선하고 자연음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대 제작 환경도 최적화해 제작극장으로서의 기능 개선에 힘쓴다. 개관은 2020년 예정이다.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조감도



2018년 11월 26일 지하주차장 착공

관객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 공사에 돌입했다. 별관 건물 앞 지상주차장 하부 지하 공간을 활용해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조성된다. 약 58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출차 동선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해 공연 관람 후 출차 또한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지상부에 방문객을 위한 편의·휴게 공간까지 마련, 국립극장 내 녹지율을 높이고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정리 — 이정연·차경주 국립극장 홍보팀

1950 ——— 2020

National Theater of Korea
70th Anniversary



**국립극장 70년,
예술의 즐거움을 퍼트리다**

무대를 잇다

36

미리보기 하나

국악으로 건네는
신년사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 음악회'

38

미리보기 둘

극장 옆, 문화 산책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
국립무용단 '설·바람'

42

되새기기 하나

변칙의 발전사에서
존재한 하나의 격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I
'격格, 한국의 멋'

국악으로 건네는 신년사

2020년 경자년 쥐의 해가 열렸다. 희망·평화·사랑·행복이
국악 관현악을 타고 오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품격 있는 연주로 신년 인사를 건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마다 1월 1일이면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은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날아오는 생방송을 기다린다. 주인공은 바로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1939년 지휘자 클레멘스 크라우스가 시작한 이 음악회는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1·2세 부자^{父子}의 행진곡이나 춤곡처럼 밝고 경쾌한 곡을 주로 연주해 새해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진다. 빈의 유서 깊은 음악당인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매년 1월 1일 오전 11시 15분(현지 시각)에 열리는데, 매년 당대 최고의 지휘자를 초대해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일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 전 세계 90개국에 생중계되고 지구촌 5천만 명이 시청하면서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클래식만큼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악은 어떨까. 빈에서 8천 2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선 우리 정서의 깊은 곳을 농익은 힘으로 두드리는 국악 관현악으로 새해를 연다. 2020년 경자년 쥐의 해를 맞아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대형 파이프오르간과 JTBC ‘팬텀싱어2’ 우승팀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SBS ‘영재발굴단’에서 찾아낸 천상의 목소리 양제인·정인성 어린이가 총출동해 ‘신년 음악회’를 한다. 그동안 국립국악관현악단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직전, 연말 공연으로 ‘제야음악회’와 ‘윈터 콘서트’ 등을 열어왔다. 올해부터는 연말연시 모두 관객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음악으로 관객의 소원을 빈다는 의미를 담아 ‘윈터 콘서트’에 ‘신년 음악회’를 더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악 관현악을 타고 온 이채로운 새해 인사

클래식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파이프오르간이 국악 무대에 가세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파이프오르간과 협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이 열릴 롯데콘서트홀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무대 중앙 뒤편에서 은빛 몸집을 반짝이는 높이 10미터짜

날짜 2020년 1월 16일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포레스텔라



신동일

리 파이프오르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정일련에게 위촉한 10분 길이의 파이프오르간 협주곡을 초연한다. 동서양 음악을 아우르는 재독 작곡가 정일련은 지난 2011년 국립국악관현악단과 6악장짜리 합주 협주곡 ‘파트 오브 네이처’를 선보였으며, 2016년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로 활동한 바 있다. 파이프오르간 연주는 연세대 신동일 교수가 맡았다. 2006년 프랑스 오르간 콩쿠르 ‘그랑 프리 드 샤프트르’에서 대상을 받은 신동일은 열세 살 때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신부의 오르간 연주를 보고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소리를 빚어내는 듯한 마력”에 흠뻑 빠져서 오르가니스트가 됐다. 4년 전 롯데콘서트홀 개관 공연 때 파이프오르간을 처음 연주한 사람도 그다. “그동안 음악 활동의 원천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신동일은 “국립국악관현악단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조명하고 음악 폭을 넓히면서 새로운 음악도 만들어내게 돼 기쁘다”라고 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일제강점기에 뚝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반달을 쪽배 삼아 서쪽 나라로 나아가며 나라 잃은 민족의 애환을 달래줬던 동요 ‘반달’(윤극영 작사·작곡)은 작곡가 김대성의 손에서 통일을 위한 ‘반달 환상곡’으로 재탄생해 연주된다. 2018년 11월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Ⅱ ‘다시 만난 아리랑’에서 위촉 초연된 곡이다. 김대성의 ‘반달 환상곡’은 월북 음악가 고故 김순남이 동요 ‘반달’에 북한에서 채보한 토속 민요를 접목한 국악 관현악이다. 함경도 고진 지방 민요인 ‘발 풍구소리’와 단천 지방 민요인 ‘베를 노래’ ‘물방아 타령’이 등장해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민요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곡 중간에 나오는 아련하면서도 슬픈 선율은 황해북도 곡산 지방 ‘자장가’로 김대성이 직접 채보했다. 한민족이 분단이 전부터 공유한 정서를 민요로 되새기고, 이를 통일을 위한 염원으로 승화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작곡가 김기범은 땅속에서 자그마치 1,500년 넘게 잠자다 20세기가

돼서야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라 시대 그림에서 국악 관현악을 위한 ‘天馬圖(천마도)’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천마도는 1973년 경주의 한 무덤을 발굴하다가 출토된 그림. 장니(障泥, 그러니까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흠이 튀지 않도록 가죽 등으로 만들어 말의 배 양쪽에 늘어뜨리는 말다래에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색칠돼 있었다. 김기범은 “사방에 둘러쳐진 덩굴무늬까지도 천마와 어우러져 조화로웠다. 나도 모르게 한참을 서서 천마도를 마주 봤다”라며 “우리나라 전통 회화가 지닌 가치와 고유한 아름다움이 이 곡을 통해 더욱 강렬하고 깊이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관악기와 현악기가 대립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녹아드는 국악 관현악 ‘천마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동해안별신굿 반주로 쓰이는 장단 중 하나인 드령강이를 접목해 2분박과 3분박이 복잡하지만 유려하게 뒤섞이는 조화로움을 보여준다.

그 밖에 작곡가 손다혜가 초기 애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 ‘이필균의 애국가’ ‘학생애국’ 세 곡을 엮어 편곡한 ‘애국가 환상곡(가제)’은 양제인·정인성 어린이의 맑은 목소리로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는 뮤지컬·성악·오페라·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들답게 폭발적 가창력을 뽐내며 힘찬 남성 사중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분위기를 담은 곡을 많이 발표해 크로스오버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받기에 이번 협연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지휘는 국립국악관현악단 김성진 예술감독이 맡는다. 해외에선 새해가 오면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로 한 해를 시작하듯, 국악 관현악으로 새해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는 김성진 예술감독은 “우리 음악의 성찬이 전 국민에게 희망찬 기운을 전하길 빈다”라고 전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온 마음 다해 외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 셈이다.

글 — 김경은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고교 3학년 때까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많은 이들이 고전음악·전통음악을 낯설어하고 또 어려워하지만 음악의 사소한 뒷면까지 꼭꼭 소화해 누구든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지금은 꿈이다.

COURSE 1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날짜 ~2020년 1월 26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극장 옆, 문화 산책

공연만 보고 곧장 집에 가기
아쉽지 않은가.
이왕 추위를 무릅쓰고 밖으로 나왔다면,
제대로 문화생활을 누려보자.



추위를 잊게 하는 웃음판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14년 국립극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 마당놀이는 지금까지 '심청이 온다'(2014·2017), '춘향이 온다'(2015), '놀보가 온다'(2016), '춘풍이 온다'(2018·2019) 네 편의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났다. 총 221회 공연 동안 18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우리 전통 공연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국내 마당놀이 30년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극단 미추의 수장 손진책의 결단으로 2010년 잠정 중단된 마당놀이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1980~1990년대 설날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던 마당놀이에 향수를 지닌 윗세대에게 마당놀이는 한바탕 왁자하게 웃으면서 연말연시를 보내기에 더없이 적절한 송구영신 이벤트일 터. 국립극장에서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놀이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활한 마당놀이 시리즈는 중장년층은 물론 노년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는데, 단지 옛것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 '세대 풍자'를 통한 동시대성을 확보

했기 때문이다. 2014년 '심청이 온다'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을, 2016년 '놀보가 온다'에서는 국정농단을 풍자해 객석을 뜨겁게 달군 게 그러한 예이다. 조선 말기 세태소설 '이춘풍전'을 각색한 '춘풍이 온다' 역시 대장부 기질을 지닌 몸종 오목이가 한량 이춘풍을 남편으로 맞이해 그를 호탕하게 별하는 시의적절한 각색으로 2018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8.7퍼센트라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인기에 힘입어 성사된 이번 재공연은 지난 일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벌어진 사건을 적극적으로 공연에 반영할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았다. 내로라하는 소리꾼들이 출연하는 탄탄한 캐스팅은 재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 지난 시즌 유려한 춘풍으로 사랑받은 김준수와 더불어 국립창극단의 간판 소리꾼 유태평양이 춘풍 역에 더블캐스트로 캐스팅됐다. 오목 역에는 해학연기의 일인자 서정금과 함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소리로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민은경이 새롭게 합류해 무대를 달군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위크 주제전 플레이디자인, PLAY ON

날짜 ~2020년 1월 24일
주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53-0000

태극당 주소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7
메뉴 사라다빵 5천 5백 원
모나가 아이스크림 2천 5백 원
문의 02-2279-3152



영남대 ©

다채로운 전시가 열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립극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지난 2014년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를 진행해 공연과 전시 관람이라는 폴코스 문화의 날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2020년 1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디자인위크 주제전 플레이디자인, Play on'은 과거 전국체육대회의 주 무대였던 동대문운동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DDP 개관 5주년과 전국체전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 전시다.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체육 운동장 겸 디자인 놀이터가 이번 전시의 콘셉트로, 서울의 스포츠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적인 공간을 재조명한다는 취지다. 전시는 모두 4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현실(VR) 기술을 즐길 수 있는 여섯 개 유료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태극당

국립극장과 DDP 사이에 장충동의 영원한 자랑인 족발 거리와 디저트 명소인 태극당이 자리하고 있어 알찬 하루를 보내기에 더욱 좋다. 광복 직후 문을 연 태극당은 일본인이 운영하던 제과점 '미도리야'를 인수하면서 시작했다. 민족의 이상을 담아 '태극당'이라 이름 짓고, 무궁화를 로고로 삼았다고. 이처럼 70여 년 역사를 지닌 태극당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지만,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 세련되게 꾸민 내부 공간이 눈에 띈다.

덜컹, 문을 열고 태극당으로 들어가면 긴 시간 빵을 구워온 장인의 손길 아래 향긋한 빵냄새가 흘러나온다. 대표 메뉴 사라다빵과 모나가 아이스크림도 맛있지만, 2015년에 새롭게 문을 연 카페 역시 하루 식단에 커피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진한 맛을 자랑한다.



한국 춤의 아름다움을 느낄 시간

국립무용단 '설·바람'

설 연휴, 문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코스는 국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설·바람'이다. '설·바람'은 명절 연휴에 맞춰 기획된 국립무용단의 명절기획시리즈로, 지난 추석에 공연된 '추석·만월'에 이어 이번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맞게 새로워진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새로운 전통 쓰기'를 목표로 국립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안무에 참여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춤을 동시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재창조해 오늘날 관객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즌 '설·바람'의 진두지휘를 맡은 연출가 김명곤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낸 다양한 한국춤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물한다. '설·바람'에서 소개될 아홉 편의 소품 가운데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새해 복을 듣기 위해 신이 하늘에

서 내려오길 청하는 '맞이'다. 이어서 봉산탈춤의 일곱 번째 마당인 '미알할미'로 유쾌하고 해학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며, 선비의 모습을 그리는 '동래학춤'과 부채를 활용하는 '부채춤'으로 한국무용의 아름다운 선이 살아 있는 춤사위를 선보인다. 한국 고전의 대표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춘향전'에서 춘향과 몽룡의 애틋한 사랑을 2인무로 표현한 '사랑가'나 빠른 호흡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재석의 흥을 끌어올릴 '장고춤' '소고춤' 또한 눈여겨볼 무대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설·바람'의 백미는 행복한 한 해를 다 함께 기원하는 의미로 준비한 흥겨운 뒤불이 한마당 '기복의 삼복'과 '풍물의 향연'이다. 이번 '설·바람'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단 3일간 공연되며, 연휴에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녁이 아닌 마티네(낮 공연) 공연으로 진행되니 민족대 명절에 어울리는 우리 전통을 느낄 기회를 놓치지 말자.



반얀트리



반얀트리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60
메뉴 세라비(조각 케이크) 8천 8백 원
문의 02-2250-8171



**남산골
한옥마을**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4길 28
문의 02-2261-0517



남산골한옥마을

디저트 한 점을 누리는 여유

반얀트리

공연 관람 후 다시 나들이를 떠나기 전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전, 고품격 디저트 타임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는 국립극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다. 클럽동 1층에 위치한 몽상클레르는 일본의 대표 파티시에인 쓰지구치 히로노부 셰프의 브랜드로, 반얀트리 서울에 국내 1호점을 열었다. 모처럼 기분을 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시그너처 디저트 케이크인 세라비. 프랑스어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뜻의 세라비는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과 상큼한 산딸기, 바삭한 휘양티누의 조화가 매력적이다. 1996년 프랑스 과자 콩쿠르 우승작이기도 하다. 디저트 애호가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데 포크로 케이크 귀퉁이를 살짝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국립극장에서 마티네 공연을 관람한 후에 방문하기에도 좋다.

전통의 멋이 흐르는 공간

남산골한옥마을

국립극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남산골한옥마을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공연 관람한 후 방문하기 좋다. 추운 겨울 남산골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옥 지붕 아래 뜨끈한 아랫목의 온기를 누리며 전래놀이를 하는 '건강한 겨울나기'와 '전래놀이방'이 그것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2천 원에 2시간 동안 즐길 수 있다. 전래동화를 영상으로 만나는 '전래동화 영화관'은 무료로 운영된다. 위에 소개한 행사는 1월 19일까지 운영하나, '설·바람'을 공연하는 설 연휴에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설 행사가 특별히 마련돼 있다. '설·바람' 관람, 티타임, 그리고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즐기는 세시풍속행사까지. 설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문화 에너지 충전이 100퍼센트 완료될 것이다.

글 — 배경희 월간지 '더뮤지컬' 편집장. 좋은 작품을 좋은 배우가 좋은 공연으로 완성해 줄 때 객석에서 나 자신이 생생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무대를 잇다
되새기기
하나



변칙의 발전사에서 존재한 하나의 격

다섯 곡이 모두 지나고 나니, 커췌이 쌓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역사를 훑은 듯해 마음이 꽤 벅찼다.
선별된 곡들은 악단이 얼마나 일관되게,
그러면서도 변칙적으로 성장해 왔는지 말해 주고 있었다.

2019년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김성진 신임 예술감독이 부임했다. 그는 국내에서 작곡을, 미국에서 지휘를 공부한 이력을 지녔다. 그런 그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 새로이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은 국악과 양악을 모두 능숙하게 다룬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런데 지켜보니 김성진 예술감독의 강점은 따로 있는 듯하다. 그는 '소통왕'이다. 부임 후에는 제일 먼저 단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직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격계, 한국의 멋'은 '소통왕 김성진'의 해안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우선 지난 10월, 관현악시리즈의 첫 막을 연 '3분 관현악'을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김성진은 신임 예술감독으로 임명됐을 때 '젊은 작곡가'와 '젊은 지휘자'를 발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 일환이던 '3분 관현악'에서는 젊은 작곡가들과의 밀접한 스킨십이 돋보였다. 개화라는 과제에서 젊은 음악을 덩달아 받아들이는 김성진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급진적 자세가 인상 깊었다.

다음 관현악시리즈로 '격계, 한국의 멋'을 배치한 건 탁월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주력해 온 창작음악을 중심으로 악단의 정체성이 담긴 대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공연이었다. 진보적인 실험에만 몰두하다 보면 중심을 잃기 마련이다. '격계, 한국의 멋'은 실험의 과정에서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기성 작곡가

들이 국악 관현악 창작에서 무엇을 염두에 뒀는지 짐작하게 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995년 창단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작음악을 위한 분명한 지향을 보여왔다. 초대 단장 박범훈부터 현재 김성진 예술감독까지 총 일곱 명의 예술감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위해 부단히 애써 왔다. 그간 국악기를 다양하게 개량했고, 국악 관현악단에 적합한 악기 편성을 고민했으며, 서양 악기와 의 협연을 모색했다. 이는 모두 국악 관현악 사운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격계, 한국의 멋'은 그동안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해 온 주옥같은 창작 레퍼토리 중 '한국의 정신과 악단의 정체성을 담은 명곡'을 선정해 무대에 올렸다.

재밌는 점은 선곡 과정이다. '국악 관현악의 명곡'이라고 칭하려면 명확한 선정 과정과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음악이란 감상하는 이의 마음에 따라 교묘히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니까. '왜 이 곡이 오늘날의 국악 관현악을 대표하는 지'에 관한 명백한 이유를 제시해야 관객도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김성진 예술감독은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2단계의 선곡 과정을 거쳤다. 1차로 단원들이 수많은 관현악곡 중 20여 곡을 추렸고, 이후 김성진 감독과 선곡 자문위원(김제영·이

지영)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종 다섯 곡을 선정했다. 프로그램 북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운영 자문위원 다섯 명의 곡마다 추천사를 꼼꼼히 적어놓아 곡에 관한 신뢰도를 높였다.

김성진의 말에 따르면, 1차로 곡을 추릴 때 단원마다 선호하는 곡이 매우 달랐다고 한다. 누구는 전통 국악을 느낄 수 있는 곡을, 누구는 현대적인 창작곡을 ‘베스트’로 꼽았다고. 국악 관현악의 양식적 실험이 거듭될수록 누구보다 단원들이 가장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을 터. 그런데 오묘하게도 선정된 다섯 곡에서 하나의 결이 느껴졌다.

켜켜이 쌓인 악단의 역사를 훑다

강준일·김성국·김대성·양방언·임준희. 다섯 작곡가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강준일부터 임준희까지, 한 세대를 거치며 국악 관현악이 어떠한 성장을 이뤘는지 그 과정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첫 순서는 국악 관현악을 위한 관현악 소묘 ‘내 나라, 금수강산..’. 이 곡은 2015년 별세한 강준일의 유작으로, 2014년 3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작곡가 시리즈3’에 위촉 초연됐다. 강준일은 한국 창작음악에 새로운 지평을 연 작곡가다. 물리학과 출신 강준일의 작품은 음악의 성질과 법칙에 관한 치밀한 접근이 돋보인다. 작곡가 말년의 유작이 된 ‘내 나라, 금수강산..’에서는 음향적 분배를 고려한 편성이 도드라졌다. 창작음악 발전사에서 악기 편성으로 인한 음향적 실험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였는지, 그 속에서 강준일이 얼마나 집요하게 고민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김성국의 국악 관현악 ‘공무도하가’가 이어졌다. 2012년 국립국악관현악단 ‘新, 들림’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각 국 악기가 지닌 특유의 음색을 채지 있게 활용했다. 고대가요 ‘공무도하가’를 소재로 한 곡이며, 전반적으로 서정성이



대금연주가 김정승

물씬 배어난다. 도입부에서 물의 이미지가 점차 확장되며 후반부에는 다이내믹한 분위기가 극대화된다. 가야금이 만드는 물의 소리 위에 다양한 악기 음색이 점층적으로 쌓이며 마침내 하나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특히 연주자들의 목소리가 악기 소리를 파고들며 흔들리는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각 악기가 지닌 처연한 색채감을 능란히 활용한 작품이었다. 국악 관현악에 속한 악기 하나하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숙원은 국악기 음역의 확장이었다. 웅골진 국악 관현악 사운드를 위해서 국악기 개량은 필수였고, 차근차근 악기를 개선해 나가고 주법을 발전시켜 현재에 이르렀다. 김대성의 대금 협주곡 ‘풀꽃’은 대금의 화려함을 마주하게 했다. 200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초연된 이 곡은 아프리카와 한국의 민속 장단을 결합한 작품이다. 작곡가 김대성은 이번 공연을 위해 14년 만에 작품을 개작했다고 한다. 큰 변화는 후반부를 확대하고 전체 선율을 다듬은 것. 연주를 빛낸 건 단연 대금 협연자 김정승이다. 그는 그간 현대음악 연주 기법을 고안하며 전통악



국악관현악단 김성진 예술감독

기를 위한 현대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해왔다. 해방을 향한 이라크인들의 격동적인 몸짓이 대금의 역동적인 선율을 통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했다.

후반부의 두 곡은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작품이다. 2019년 3월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에서 초연한 양방언의 '아리랑 로드-디아스포라'는 7악장 구성의 '국악 관현악 교향곡'이다. 전체 악장을 다 연주하면 40여 분이 소요되기에, 이번 공연에서는 1·2·3·5·7악장만 선보였다. 악장마다 완결성이 강해 단독으로 연주해도 고려인의 삶이 담긴 전체의 열개를 읽어낼 수 있었다. 반면 임준희 국악 칸타타 '어부사시사'는 '칸타타'를 표방한다. 이번 공연에선 서곡과 춘사·하사·추사·동사 이렇게 사계절의 한 대목씩을 발췌해 올렸다. 정가 김나리, 바리톤 임병욱과 스칼라오페라중창단이 함께 해 웅장한 합창의 울림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 다섯 곡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국악 관현악의 전통과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연결되는 하나의 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각 작곡가가

추구하는 창작 방식에서 일련의 사유 패턴이 감지된 것이다. 전통 소재를 활용해 한국의 미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모든 곡에서 느껴졌다. 더불어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심도 묻어나왔다. 한국의 금수강산이나 고대가요, 윤선도의 시 등 이들이 활용한 소재는 음악에 한국적 정서를 부여하는 좋은 수단이 됐다. 더불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삶을 아리랑에 녹인 양방언의 교향곡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울분이 느껴지는 김대성의 협주곡은 창작음악의 사회적 역할을 짚어보도록 했다.

다섯 곡이 모두 지나고 나니, 커췌이 쌓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역사를 훑은 듯해 마음이 꽤 벅찼다. 선별된 곡들은 악단이 얼마나 일관되게, 그러면서도 변칙적으로 성장해 왔는지 말해 주고 있었다. 온건과 급진의 기로에서 김성진 예술감독의 방향 감각은 유다르다. 김성진이라는 새로운 선장을 만난 국립국악관현악단.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고 있다.

글 — 장혜선 월간 '객석'에서 음악과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바른 시선으로 무대를 영원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글을 쓴다.

마당놀이 초풍이 온다

2019.12.12-2020.1.26
국립극장 달오름

극본 김지일 작곡 박범훈
각색 배삼식 안무 국수호
연출 손진행 연출감독 김성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설·바람



국립극장 | 국립무용단

2020
1.24
|
1.26

국립극장 | 하늘
오후 3시

예술감독
손인영
연출
김명곤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6
티켓링크
1588-789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2020
2.6
—
2.19



ONE MAN, TWO GUVNORS

한 남자와 두 주인

연출 니컬러스 하이트너 | 주연 제임스 코든

Photography (James Corden) by Johan Persson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주최 국립극장
티켓 전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ticketlink.co.kr



THE LEHMAN TRILOGY

리먼 트릴로지

연출 샘 멘데스 | 주연 사이먼 러셀 빌, 애덤 고들리, 벤 마일스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 원작 마크 해던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1월의 국립극장

2020 January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 www.ntok.go.kr

※공연 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 해오름극장(리뉴얼 중) 🟡 달오름극장 ★ 별오름극장 🟢 하늘극장 ● 기타(외부공연장 기획공연)						
5	6	7	8	9	10	11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12	13	14	15	16	17	18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 음악회' 20: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19	20	21	22	23	24	25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무용단 '설·바람' 15:00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무용단 '설·바람' 15:00 🟢
26	27	28	29	30	31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 국립무용단 '설·바람' 15:00 🟢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2020 신년음악회'

1월 4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1945년 설립된 서울시향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첫 음악감독인 지휘자 정명훈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성장했다. 이번 '2020 신년음악회'는 10년간 음악감독으로 악단을 이끌었던 정명훈과 서울시향이 2016년 이후 4년 만에 호흡을 맞추는 공연이다. 또한 흠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감 그리고 강렬하고 극적인 연주로 아시아와 유럽 무대를 누비며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이번 공연의 협연자로 출연한다. 이들이 선사할 프로그램은 완벽주의 작곡가 브람스가 22세부터 43세까지 21년 동안 작곡했다고 전해지며, '베토벤 10번 교향곡'이라는 별칭이 있는 그의 교향곡 네 곡 중 첫 번째 작품, '브람스 교향곡 제1번'과 브루흐의 대표 작품이자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이다.



2020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18~19일 | 롯데콘서트홀
롯데문화재단 1544-7744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1498년 이래, 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와 교육은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아, 오스트리아의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빈 소년 합창단은 1969년 처음 한국을 찾은 이후로 140여 회에 달하는 내한 공연을 이어왔으며,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롯데콘서트홀의 파이프오르간 연주와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한다. 빈 소년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헨리 퍼셀의 '오라 그대 예술의 자녀여',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의 '바빌론의 강가에서',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의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등을 파이프오르간과 함께 선보이고, 관객에게 친숙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어딘가에',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폴카 '뱃사람' 등을 연주한다.



임희운의 팝학다식

~4월 | 포니정홀
포니정홀 02-2008-8814

퀸·아바·핑크 플로이드·마이클 잭슨·데이비드 보위·레이디 가가·에미넴·마일스 데이비스·에디트 피아프. 고대의 석상 같은 존재가 돼버린 팝 아이돌의 족적을 따라간다. '임희운의 팝학다식'은 동아일보 문화부에서 10년 넘게 대중음악을 취재해 온 임희운 기자의 강연으로 2019년 11월 시작됐다. 1월 11일에 진행되는 2020년 첫 강의는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로 다시 조명받은 퀸의 화려한 음악 세계와 핑크 플로이드가 대표하는 실험적 대중음악의 역설적 전성기를 살펴본다. 강연은 고급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100석 규모의 포니정홀에서 진행된다. 포니정홀의 국내 최고 하이엔드 시설을 통해 실연에 가까운 음악 감상도 가능하다. 팝을 비롯해 재즈·상승·라틴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임희운의 팝학다식'은 4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연극·뮤지컬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월 2일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연극열전 02-766-6007

전 세계 35개국에서 1천만 부 이상 판매된 스웨덴 소설을 원안으로, 지이션 작가와 김태형 연출을 비롯한 국내 창작진을 통해 재탄생된 연극. 100세 생일날 잠옷 차림으로 양로원을 탈출한 ‘알란’이 우연히 갱단의 돈 가방을 훔치면서 펼쳐지는 황당한 에피소드와 과거 100년 동안 의도치 않게 근현대사의 격변에 휘말리며 겪어온 모험이 교차한다. 연극은 소설의 주요 에피소드를 압축해 5명의 배우가 사람뿐 아니라 코끼리, 고양이 등 60여 개의 캐릭터를 소화하는 전무후무한 일인다역을 연기한다. ‘젠더 프리 캐스팅’ 등 다양한 연극적 약속이 재기 발랄하고, 약자와 연대하고 술·친구·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란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선보이며 2018년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을 사로잡았다. 이번 시즌에는 오웅·배해선·김아영·오소연·오종혁·이형훈·최호승·김보정·임진아·전민준이 출연한다.



위월락유

~2월 20일 | 잠실종합운동장 위월락유 전용 공연장
로열씨어터 엠에스컨텐츠그룹 070-7729-5070

2002년 영국에서 초연된 뮤지컬 ‘위월락유’는 24곡에 달하는 퀸의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퀸의 기타리스트이던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가 뮤직 슈퍼바이저로 참여했으며, ‘보헤미안 랩소디’를 비롯해 ‘돈 스탱 미 나우’ ‘썸바디 투 러브’, 뮤지컬 제목 ‘위월락유’도 직접 들을 수 있다. 뮤지컬은 라이브 음악이 지구상에 금지된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자유를 원하는 갈릴레오와 반항아 스카라무슈가 예언을 따라 음악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룬다. 갈릴레오 역에는 부활의 정동하와 엔플라잉의 유희승, ‘히든싱어’ 김경호 편에 출연해 준우승한 곽동현과 신예 뮤지컬배우 조환지가 캐스팅됐다. 걸크러시 여자주인공 스카라무슈 역은 샤넌과 황한나·임소리가 함께 한다.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위월락유’ 전용 공연장은 대형 LED 모니터와 조명으로 록콘서트장을 방불케 한다.



여명의 눈동자

1월 23일~2월 27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화감성아트 02-764-9102

‘여명의 눈동자’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겨울부터 6.25 전쟁 직후 동아시아 격변기 10년을 배경으로 세 남녀의 지난한 삶을 통해 한민족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와 대서사를 담아낸다. 2019년 초연 당시 시공간을 넘나드는 효과적인 연출과 극 전반에 흐르는 웅장하고 애절한 선율의 음악으로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2020년 재연은 초연의 작품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대에 원작의 방대한 서사와 장대한 스케일을 그대로 녹여냄으로써 한층 견고해졌다. 질곡의 세월을 보내는 윤여옥 역에는 김지현·최우리·박정아가, 여옥과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지만 안타깝게 헤어지는 최대치 역에는 테이·온주완·오창석이 출연한다. 여옥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장하림 역에는 마이클리와 이경수가 열연한다. 초연 당시 최대치와 대척점에 선 장하림 역으로 열연한 테이의 변신도 주목할 만하다.



오월바람

1월 11~12일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3668-0007

무용 ‘오월바람’은 1980년대 광주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발레로 표현한다. 작품은 광주의 모 대학교 무용과 연습실에서 발레 연습을 하는 주인공들,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시민군과 계엄군의 충돌을 다룬다. 역사적 사실에 픽션을 가미한 스토리발레로 발레를 쉽고 친숙하게 전하고자 한다. 특히 섬세하면서도 격렬한 군무, 인물의 감정에 집중한 캐릭터들의 안무가 도드라지며, 작품은 이를 통해 ‘자유인으로서 당당한 죽음과 비굴한 굴종의 삶 중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오월바람’은 우리가 경험한 억압의 아픔을 치유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화합을 희망하는 작품이다. M발레단의 예술감독 문병남이 안무를, 2019년 300여 명 규모의 대형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을 작업한 나실인이 음악을 담당한다. 윤전일·박예은·정영재 등이 무용수로 참여한다.



2020 제2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

1월 16~19일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팩
마포문화재단 02-3274-8600

국내 최정상 탭댄스 단체가 참여해 4편의 공연을 선보인다. 탭꾼댄스컴퍼니 김길태 단장이 안무를 맡고, 친형인 와이즈발레단 김길용 단장이 연출한 ‘아라비안 나이트’는 발레와 탭댄스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은다. ‘올댓리듬’은 엑소의 디오가 출연한 영화 ‘스윙키즈’의 원작이 된 뮤지컬에서 안무를 맡은 박용갑의 작품으로, 탭댄서들의 다이내믹한 테크닉과 리듬, 하모니를 즐길 수 있는 입체적인 공연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3개국에서 10여 년간 탭댄스 유학을 마치고 활동 중인 김정환의 ‘타임 포 클래식’은 ‘탭댄스 역사기행’을 콘셉트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탭댄스 마스터들의 스텝과 컨템퍼러리 탭댄스를 보여준다. 마지막은 토크쇼 형식의 탭댄스 ‘남궁인의 리듬 다이어리’가 준비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장 핫한 탭댄서들을 초대해 각자가 추구하는 색깔과 탭댄스의 스펙트럼을 소개한다.



8음

1월 17~18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3668-0007

15세기 세종은 종묘제례악을 새롭게 만들며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대성악악으로 종묘제례를 지내던 고려 예종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내려온 음악이 과연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일까?’ ‘8음八音’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음악그룹 나무가 15세기의 세종에게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종묘제례악을 바탕으로 ‘악학궤범’이 악기의 구성 요소로 꼽은 8음을 가지고 오늘날의 행복과 풍요를 빌어주는 의식 음악을 새롭게 구성한다. ‘8음’은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는 전통악기뿐 아니라 콘트라베이스, 일렉 베이스, 타악기 등 현대음악에서 쓰이는 악기를 함께 편성해 종묘제례악을 분해하고 재조립한다. 음악그룹 나무는 그동안 추구해 온 전통음악의 깊은 정신을 바탕으로 동시대 음악어법을 결합한 방식 그대로 새롭고 독특한 종묘제례악을 만들었다.



보통의 거짓말

~2월 16일 | 석파정 서울미술관
서울미술관 02-39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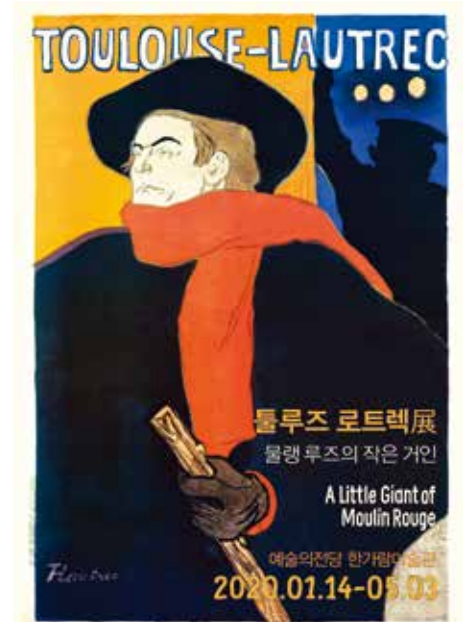
‘일상 속 거짓말’을 소재로 총 23팀이 참여해 100여 점의 현대미술을 선보인다. 어느 순간엔가 너무 흔해진 ‘거짓말’이란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예술 경험과 사유의 지점을 전달한다. 전시는 선악과에 손을 댄 하와가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만들어낸 이야기가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라 정의하며 시작된다. 이후 이어지는 3개의 섹션은 거짓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를 떠나 우리는 어떤 거짓말로 상처를 주고받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의 거짓말을 담는다. 한국부터 루마니아와 러시아, 스위스와 멕시코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회화와 설치 작품, 영상에 걸쳐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따분한 전시 기획 의도 설명에서 벗어나 국어사전 표제어 형식으로 재해석해 관람객의 직관적이며 적극적인 관람을 독려한다.



경계의 예술, 타투

~4월 8일 | 인사1길 코트(KOTE) 3층
TATTIST 070-7750-5252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타투예술 기반의 전시. 타투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극대화해 선보이는 전시는 스튜디오형과 체험형으로 구성해 오늘날의 타투이스트를 예술가로 조명한다. 스튜디오에는 타투이스트 각자의 고유한 타투 언어를 보여주는 석고상 오브제와 함축된 예술관을 확장한 다섯 공간이 마련돼 있다. 동양적 소재와 주제를 모티프로 블랙 워크 작업을 하는 쿠바, 자연물을 투명하고 맑은 색채로 표현하는 실로, 자연의 색감과 질감을 살린 공간에서 전시하는 설원, 다양한 색과 선 등 독특하고 추상적인 이미지의 길비, 윗트와 키치를 타투에 담은 조울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타투이스트들의 페이퍼 도안, 실제 사용하는 타투 기구와 재료로 구성된 보편적인 한국의 타투숍도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타투를 예술로서 편견 없이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한다.



툴루즈 로트렉크展

1월 14일~5월 3일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메이드인뷰 070-4104-1800

국내에서 선보이는 로트렉크의 첫 번째 단독전으로, 그리스 아테네 헤라클레이돈 미술관이 소장한 150여 점의 작품을 최초 공개한다.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툴루즈 로트렉크는 19세기 후반, 보헤미안의 라이프스타일을 5천여 점에 달하는 작품으로 날카롭게 그려낸 프랑스 화가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 중 ‘제인 아브틸’ ‘아리스티드 브뤼앙’ 등 포스터 작품들과 ‘배에서 만난 여인’ 등 석판화 작품, 연필과 펜으로 그린 스케치 작품들, ‘르 리르’ ‘라 레뷰 블랑슈’ 등 잡지에 게재된 그래픽과 풍자 일러스트 등은 화가 툴루즈 로트렉크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19세기 말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로트렉크의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소개하는 영상과 미디어아트, 당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은 그의 일러스트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국립극장 이용 안내

티켓 예매 및 회원가입 안내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예매 수수료 없음, 엔톡NTOK 회원 가입 시 최고 20% 할인율 제공

전화 및 현장 예매

콜센터 02-2280-4114(오전 9~12시, 오후 1~6시 / 연중무휴)

예매처 하늘극장 옆 고객지원센터 방문

할인 안내

엔톡NTOK 회원	최고 20%	1인 4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회원
문화융성카드	최고 20%	제한 없음
		문화융성카드 결제 시
임산부	20%	본인
		산모수첩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20%	본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문화패스(청소년 등)	30%	본인
		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생
예술인패스	30%	본인
		예술인패스 소지자
경로	50%	본인
		65세 이상
문화누리	50%	본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유공자	50%	1인 2매
		복지카드 소지자

* 공연별 할인율은 주최 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극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주차 안내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로 국립극장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국립극장 맞은편 한국자유총연맹(J-그랜하우스웨딩홀)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공연 당일 국립극장 내 사전 정산 시

5천 원(공연 시작 전 30분~종료 후 30분)

미정산 시

최초 30분 2천 원 이후 10분당 1천 원(일일 최대 2만 5천 원)

* 주차 할인권은 매표소에 당일 공연 티켓을 제시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주말에는 한국자유총연맹(J-그랜하우스웨딩홀)이 혼잡해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과 국립극장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국립극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동반 차량 및 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주차는
국립극장 고객지원센터(02-2280-4114)로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후 도보·버스 이용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하차 후 버스 이용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하차 후 버스 이용

간선버스 420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남산순환버스 02·03·05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무료 셔틀버스

공연 전

타는 곳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남산순환버스 정류장 앞

운행구간 3호선 동대입구역 → 국립극장

운행시간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15분 간격으로 운행

공연 후

타는 곳 하늘극장 앞

운행구간 국립극장 3호선 동대입구역 2·4·5호선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운행시간 공연 종료 직후

National Theater of Korea Information

TICKET RESERVATION AND JOIN

INTERNET / MOBILE RESERV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website ntok.go.kr
No reservation fee, Maximum 20% discount for NTOK members

MOBILE / COUNTER RESERVATION

Service Center 02-2280-4114
(9:00–12:00 a.m., 1:00–6:00 p.m. every day)

Booking Office
Visit to the Customer Service Center next to Haneul Theater.

DISCOUNT

NTOK member	Max 20%	4 per person
		NTOK website members
Cultural prosperity card	Max 20%	No limit
		Purchase with cultural prosperity card
Pregnant woman	20%	Oneself
		Who has pregnancy diary
Dadung-i happy card	20%	Oneself
		Who has a Dadung-i happy card
Culture pass (teenager, etc.)	30%	Oneself
		8–24 years old, Uni. Student
Art pass	30%	Oneself
		Who has an art pass
Elder	50%	Oneself
		65 years old or older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50%	Onesel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or Near poverty
Handicapped veteran	50%	2 per person
		Who has a welfare card

* Refer to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ebsite for the detailed discount information of each program.

* Take the certificate to receive the ticket.

DIRECTION

ADDRESS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PARKING

As the underground parking lot is under construction the parking lot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is not available. Go to the parking lot of Korea Freedom Federation (J-Gran House Wedding Hall) across the Theater.

PARKING FEE

Pre-purchase of parking discount ticket on the day of performance
5,000 KRW (30 minutes before/after the performance)

Without parking discount ticket
2,000 KRW for less than 30 min., 1,000 KRW/10 min. after first 30 min. (Max 25,000 KRW a day)

- * Present the ticket of the day at the ticket office to purchase the parking discount ticket.
- * The parking lot of Korea Freedom Federation (J-Gran House Wedding Hall) will be crowded on the weekend. Public transportation and free shuttle bus could be the easier way to visi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 * Make an advance inquiry to the Management Facilities Team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regarding the parking of bus, large vehicle, and handicap accessible vehicle. (02-2280-4114)

SUBWAY / BUS

Dongguk Univ. Station (Line. 3) Transfer to the bus or on foot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Line. 2/4/5)

Transfer to the bus
Hangangjin Station (Line. 6) Transfer to the bus
Bus 420 ‘National Theater of Korea’ stop
Namsan Circulation Bus 02/03/05 ‘National Theater of Korea’ stop

SHUTTLE BUS (FREE)

BEFORE PERFORMANCE

Boarding In front of Namsan Circulation Bus stop at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 (Line. 3)
Route Dongguk Univ. Station (Line. 3) → National Theater of Korea
Operating Time Every 10–15 minutes from 1 hour to 20 minutes before performance

AFTER PERFORMANCE

Boarding In front of Haneul Theater
Route National Theater of Korea → Dongguk Univ. Station (Line. 3) →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Line. 2/4/5)
Operating Time After the performance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관해 약 22만 점의 귀중한 공연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설립된 195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극·무용·창극·음악·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실과 공연예술자료실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관람 안내

관람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관람료 무료

문의 02-2280-5804, 5806

* 박물관 내부 프로그램 진행 시 사전 예약하지 않은 단체(5인 이상)는 전시실 관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관람 안내

관람 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단체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학교 및 기관 관람 인원이 10인 이상~30인 미만일 경우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합니다. 단체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해설 안내

전문 전시해설사가 상설전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 1인 이상~30인 이하(초등 고학년 이상)

* 전시해설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시해설 예약은 단체관람 예약과 별도입니다.

* 기획전시실은 공사로 인해 2019년 10월까지 휴실합니다.

공연예술자료실

자료실 I 공연 영상·음향·사진·대본·프로그램 등

자료실 II 연극·창극·무용·음악 등 도서자료

운영 오전 9시~오후 6시(오후 12~1시 휴실)

위치 공연예술박물관 1층(자료실 I), 지하1층(자료실 II)

휴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문의 02-2280-5834, 4025~6

전시연계프로그램 안내

유치원 단체를 위한 동화 구연, 어린이·가족 대상 주말·방학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공연구러미 대여사업 등 다양한

전시연계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 일정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seum of Performing Arts

Opened on December 23, 2009,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has the most precious materials amount to about 220,000. Since its foundation in the 1950s until now, it has collected and stored materials in performing arts of various genres such as play, dance, changgeuk, opera, and pansori in which the materials are being served to the public through its exhibition rooms and Performing Arts Archives.

PERMANENT EXHIBITION

EXHIBITION INFO

Opening Hour 10:00 a.m.– 6:00 p.m. Tuesday to Sunday (Last enter 5:30 p.m.)

Close Monday, 1st of January

Admission Free

Info 02-2280-5804, 5806

* Some of Permanent Exhibition could be limited to the groups over 5 without reservation while the internal program is in progress.

GROUP VISIT

Advance reservation for groups to prevent any disorder and accident of the exhibition.

* Reservation is required for all the kindergarten, school, and institution groups of 10 to 30 before a week ago. Contact to the office for the groups over 30.

EXHIBITION COMMENTARY

Professional exhibition commentators conduct the exhibition commentary.

Group Group of 30 or less (from 4th grade of elementary)

* Commentary could be ended by the order of arrival.

* Reservation of the commentary is different from the group tour reservation.

* Special exhibition room has been closed due to the operation until October, 2019.

PERFORMING ARTS ARCHIVES

Archive I Performance video, sound, picture, script, program, etc.

Archive II Play, changgeuk, dance, music (library)

Opening Hour 9:00 a.m.– 6:00 p.m. (Closed between 12:00 p.m.– 1:00 p.m.)

Location 1st floor of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Archive I), B1 (Archive II)

Close Saturday, Sunday, public holiday

Info 02-2280-5834, 4025–6

EXHIBITION-LINKED PROGRAM GUIDE

Various exhibition-related programs such as fairy tales story-telling for kindergarten groups, weekend and va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families, youth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nd performance package rental projects are regularly operated.

* Details can be found on the museum website.

문화를 읽다

58

경계를 넘는 예술
툴의 발전,
예술의 궤도를 넓히다

62

안목의 성장
상상의 열매,
앞서간 축제
태국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66

내일의 전통
개성으로
우뚝한 거인
이현정의 달항아리

68

예술서적
사랑스러운
양말 예찬론
구달 '아무튼, 양말'



툴의 발전, 예술의 궤도를 넓히다

툴은 과학과 예술을 연결한다. 툴의 발달과 더불어 폭을 넓혀가고 있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살펴본다.

새로운 기술로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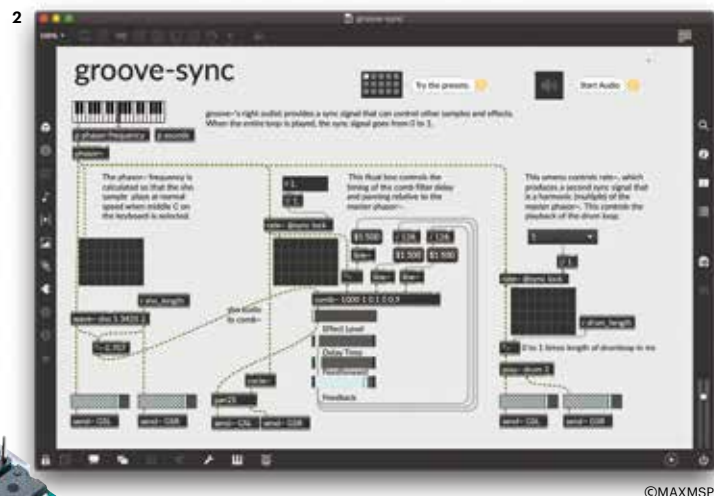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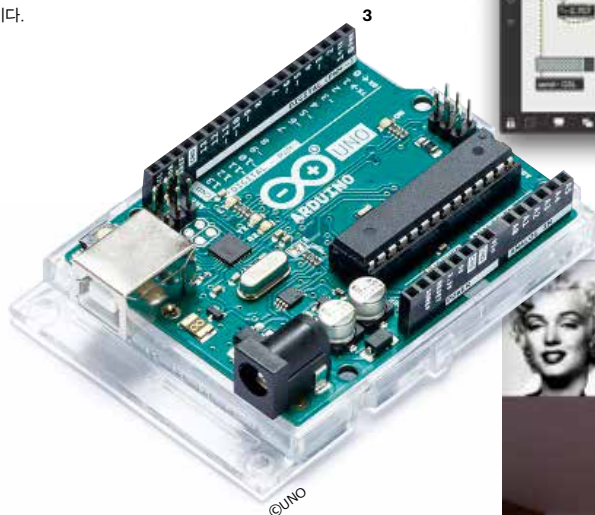
최근 30년 동안 과학기술은 이전에 없는 발전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현재 그 속도는 더욱 빨라져 우리의 예상을 계속 넘어서고 있다. 철학과 예술이 세상을 이끈다는 말은 스스로 창발하며 나아가는 과학기술을 보면 더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과거에는 인간의 생각이 새로운 표현 방식이나 장르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 엄밀히 말해 기술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스마트폰·가상현실·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이 예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술은 대부분 표현의 중심이 된다.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를 통해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달 기지의 상상도를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예술은 과거와 달리 무척 새로운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표현

도구로 이용한다. 다양한 과학기술이 인터넷으로 공유되면서 예술가들은 '과학'이 만든 새로운 툴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직접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과학기술 기관의 후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소수의 엘리트 작가들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와 달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위한 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작업이 모두에게 편리해지기까지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뉴미디어 아트 도구에 접근하기가 쉬워졌다고 생각한다. 매크로미디어(현 어도비Adobe)에서 만든 플래시Flash라는 툴을 이용한 작업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디자인 작업에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비슷한 시기 새로운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 이르컴Ircam에서 만든 맥스Max는 2000년대 초 대부분 미디어

- 1 한국의 창작 스튜디오 '자이언트스텝'이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한 디지털 인간 '빈센트'.
- 2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맥스 8'. 그래픽으로 보면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3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예술가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 '아두이노'를 쓰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시도하게 됐다.
- 4 카일 맥도널드와 아르투로 카스트로의 'Face Substitution' (2011)은 실시간으로 사진에 있는 얼굴을 자신의 얼굴과 바꾸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보인 작업이다.



아트 작가들이 써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퍼져나간 도구였다. 소리와 비주얼을 다루는 분야는 컴퓨터 공학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분야여서 보통 컴퓨터 기술자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인데, 맥스를 쓰면서 예술가들은 기존의 악기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리와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다. 더욱이 맥스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 텍스트를 입력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과 달리 그래픽으로 보면서 노드(Node(네트워크의 연결 지점·데이터 전송의 중점 혹은 재분배점)와 노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많은 예술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무대에서는 여러 악기를 사용하는 대신 노트북 한 대를 사용해서 공연을 펼치고, 전시장에는 컴퓨터와 TV·모니터·프로젝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크린이 캔버스를 대체

해 전시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형태의 전시는 있었다. 하지만 맥스Max·퓨어 데이터Pure Data·브이포VVVV·이사도라Isadora와 같은 툴이 나오면서 그에 걸맞게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고, 누구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코딩, 예술가와 과학기술자의 경계를 허물다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방식의 툴은 배우고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들어진 노드만 사용해야 해서 몇몇 예술가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좀 더 새로운 것, 독특한 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기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였다. 예술가들이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세싱Processing·오픈프레임웍스Openframeworks가 대표적



©THE DALÍ MUSEUM

©JAMES PATERSON



- 1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대화형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노드 기반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터치디자이너'를 사용해 죽은 살바도르 달리를 완벽하게 재현해 부활시킨 '딥페이크 살바도르 달리'.
- 2 아티스트 제임스 패터슨의 애니메이션 툴 'Norman', WebVR을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VR 컨트롤러를 이용해 3D 애니메이션을 구현한다. 이제 정보를 검색하던 웹 브라우저들이 강력한 3D 그래픽 뷰어로 진화했다.
- 3 실제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디지털 인간 빈센트'. 유니티3D나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구현한 디지털 인간은 컴퓨터그래픽스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인 툴이다. 예술가들이 즐겨 쓰는 오디오·비주얼·센서 입력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무료로 배포됐다. 이러한 툴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예술가들이 프로그래밍을 흉내내는 수준이었다.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카일 맥도널드·아르투로 카스트로의 'Face Substitution'(2011) 작업은 실시간으로 사진에 있는 얼굴을 자신의 얼굴과 바꾸는 작업이다. 이들은 예술가인데도 과학기술자 못지않은 대단한 프로그램 개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코딩 기반의 예술 작업 툴을 사용하는 예술가를 보면 더는 예술가와 과학기술자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제 예술가들은 자율주행에 쓰이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자신들의 작업에 사용하기도 하고,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로봇을 직접 프로그래밍해 원하는 대로 조작하며 작업한다.

메이커 운동으로 다양해진 디지털 미디어 아트 표현

컴퓨터와 스크린 위주로 활동하던 디지털 미디어 작가가 이전보다 쉽게 물리적인 장치를 연결해 작업하게 된 계기로 '메이커 운동'을 손꼽을 수 있다. 다양한 센서 카메라·버튼·적외선 거리 센서·초음파 센서·마이크·압력 센서 등에서 입력값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툴과 연결하

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자신이 사용하는 툴에서 모터를 움직이거나 조명을 제어하려 해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1990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전자IC였다. 당연히 예술가들이 직접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메이커 운동과 함께 와이어링 보드Wiring board·메이크 컨트롤러 등이 등장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쓰이는 아두이노Arduino가 소개됐다. 게다가 아두이노는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었고 이곳에서 예술가·메이커·공학자들은 의도치 않게 서로 협업하기 시작한다. 예술가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고, 아두이노 덕분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메이커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제조공학 기술·3D 프린팅·레이저 커팅·모터 제어·기계설계·전자회로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갖게 됐다.

가상현실을 실제로 구현하는 컴퓨터그래픽스

불쾌한 골짜기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이 인간과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함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거의 완벽히 인간과 닮았다면 다시 호감도는 높아진다. 우리가 사람을 컴퓨터그래픽스로



©GIANTSTEP

구현한 영화나 게임에서 무언가 거부감을 느낄 때마다 써온 말이다. 하지만 컴퓨터그래픽스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인간을 실제 인간과 구별하기 힘들게 됐다. 예술가들은 유니티Unity 3D나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같은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러한 디지털 인간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현실과 가상현실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수년 안에 벌어질 것이라 믿는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무너뜨린 인공지능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분야가 인공지능인데 이젠 디지털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죽은 살바도르 달리를 완벽하게 재현해서 부활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진 속 사람과 배경을 구별해 내기도 한다. 그동안 논리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많은 문제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으로 해결되고 있고, 구글의 텐서플로Tensorflow와 같은 인공지능 툴킷Toolkit가 나오면서부터 예술가들이 인공지능 학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현상은 언론 매체를 통해 보이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학습의 예가 예술가들이 주도한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융합이라고 말할 것 없이 이제는 다 같이 경계를 두지 않고 인공지능에 관해 고민하게 됐다.

예술을 펼쳐내는 또 하나의 언어, 웹

과거 단지 정보를 검색하던 웹 브라우저는 어느새 강력한 3D 그래픽 뷰어가 됐다. 웹과 함께 발전한 언어인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기에 민망해 스크립트 언어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젠 엄밀히 주류 언어가 됐고 인공지능·3D 그래픽스·데이터 처리 등 모든 일이 웹에서 처리 가능한 언어로 쓰이고 있다. 과거에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마다 컴퓨터가 필요했다면 웹에서 작업을 선보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웹의 개발 방향이 현재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결국 예술가들의 작업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수많은 스크린에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특정 장소를 벗어나 웹에서 작업을 보여주자는 선언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다.

사진 출처:

디지털 인간 빈센트, Giantstep, <https://www.unrealengine.com/en-US/spotlights/meet-vincent-a-real-time-digital-human-created-in-house-by-a-team-of-just-five>
아두이노, Uno, <https://store.arduino.cc/usa/arduino-uno-rev3>
Max 8, maxmsp, <https://cycling74.com>
Face Substitution, 2011 Kyle McDonald&Arturo Castro, <https://vimeo.com/29348533>
딥페이크 살바도르 달리, The Dali Museum, <https://derivative.ca/community-post/deepfake-salvador-dal%C3%AD-interacts-museum-visitors-takes-selfies>
Norman, James Paterson, <https://normanvr.com>

글 — 송호준 아티스트, 개인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우라늄 목걸이를 만들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불확실성과 우연이 존재하는 자연과 소리를 통해 에너지를 찾고 있다.



상상의 열매, 앞서간 축제 태국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1

2



다음 세대를 위한 앞날을 고민하는 축제,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김승민 큐레이터의 시선을 빌려 축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 1 원더프루트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파이어 퍼포먼스.
- 2 공중에서 내려다본 풀리곤 공연장.
- 3 수상 실터 배싱 하우스가 떠 있는 강가에서 각종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2016년 '제1회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의 전시 기획을 맡았다. 그때 나는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설치 작가인 에이브 로저스에게 전시 디자인을 의뢰했다. 그와 함께 현지답사차 청주를 찾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최초의 국제 페스티벌이란 야심 찬 포부와 비교해 전시 공간은 턱없이 협소했지만 누구보다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던 그였다. 긴밀한 협업 끝에 작은 공간에 직지의 창조 정신을 꼭꼭 눌러 담아 관객에게 아름답게 선보일 수 있었다. 에이브가 만들 원더프루트 페스티벌의 화려한 색채를 상상하며 태국 파타야로 향했다.

상상의 열매를 맺다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Wonderfruit Festival은 2014년 시작해 2019년 6회째를 맞은 친환경 예술 축제다. 이번 2019년에는 12월 12~16일 태국 파타야 외곽에 자리한 시암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태국 고유의 지역색을 강조해 연출한 11개의 공연장과 그 주변에 설치한 수많은 무대에서 뮤지컬·댄스·음악·공연·미술 설치·워크숍 등이 펼쳐졌다. '원더 Wonder'와 '프루트 Fruit', 즉 원더프루트 Wonderfruit은 '상상의 열매'라는 신조어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버닝맨' 또는 '아시아의 코첼라'라고 불리면서 그 열매를 맺었다. '버닝맨'은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 각종 퍼포먼스를 펼치는 축제다. '코첼라밸리 뮤직&아츠 페스티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코첼라밸리에서 진행되는 록 페스티벌이다. 도대체 어떤 축제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의 이름을 따 별명이 붙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원더프루트는 단순한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다. 이 페스티벌의 모토는 모든 사물을 아끼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지속가능성'이다.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인 지성인들이 이를 느끼고 경험해 변화를 모색해 가는 플랫폼인 것이다. 원더프루트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개 모집으로 뽑힌 건축가들을 한 달 동안 태국에 초대해 작품을 설치할 기회를 제공하는 '원더프루트 파빌리온'이 대표적 사례다.

사회참여와 철학을 강조하는 문화의 '다보스포럼' 같은 프로그램 '에스스ETHOS' 포럼에서는 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40여 명의 인사가 축제가 열리기 전 초대돼,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한다. 2014년 원더프루트 페스티벌을 처음 기획한 프라니탄 피트 폰프라파는 상업에 물든 파타야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천혜의 자연이 일궈낸 정신과 문화를 강조한다. 그는 다각도의 시도 끝에 2018년부터 에이브로저스와 손잡고, 작은 개울이나 텃밭을 지극히 태국적이면서도 문화를 초월한 공간 '더 필드(광장이라는 뜻)'로 꾸몄다. 피트는 종합 문화예술 장르인 축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리더이고, 에이브 로저스는 기획자의 의도를 정확히 해독해 작품으로 표현하는 디자이너다. 그들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금의 원더프루트 페스티벌의 무대와 공간이 탄생한 것. 또한 피트는 원더프루트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버닝맨에서의 경험에서 체득한 철학을 차용했다. 모든 참가자는 개인 컵을 축제 기간 내내 사용하는데, 한 톨 쓰레기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이 그 일례다. 단순히 3~4일간 떠들썩하게 놓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앞날을 고민하는 축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낼 변화의 모습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전시 기획을 할 때마다 가벽이나 조명처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수많은 전시 부대 용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그뿐만 아니다. 전자뮤직 뮤지션들이 직접 노래를 골라 2~3시간 동안 선보이는 방식으로, 세계 유수 뮤지션들의 라이브 디제잉 무대도 마련했다. 버닝맨과 이비자섬에서 열리는 여름 시즌 파티들, 한 집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지금은 수억 명이 시청하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보일러 룸'을 살펴보면 그 안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 전자음악이다. 마치 댄서, 안무가, 큐레이터, 디자이너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캔버스 위의 전시처럼 하우스, 딥하우스, 테크노 등 전자음악 뮤지션의 공연을 숲속이나 해변에서 즐기도록 큐레이션했다. 피트는 이번 원더프루트 페스티벌의 어떤 공간에 가든 끊이지 않고 들리는 전자음악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원더프루트에서 음악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설레게 하고, 포근하게 안아주다가, 또 여행을 떠나는 듯 탐험케 하는 음악을 선정했죠. 저희는 틀에 박히고 유행을 타는 트렌디한 음악 대신 약간 특이하면서도 예상할 수 없는 음악들을 선호했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거예요.”

입체적인 음향이 무대에 깃들다

최첨단 문화 스타트업 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을 맛보는 것도 원더프루트의 묘미였다. 그중 폴리곤 라이브 Polygon live는 다수 라이브 음악과 다른 신선한 감동을 안겨줬다. 음악이 지닌 고유의 감동을 한 차원 더 높이는 획기적인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이다. 보통 공연장에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무대 주위에 돌아가며 설치한다. 그런데 폴리곤 라이브에서는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관람석 전체에 거대한 원형으로 스피커를 설치했다. 지상에서 약 3미터 높이에 설치한 두 줄의 프레임에 각종 음역별 고성능 스피커 20개를 5미터 간격으로 둔 것이다. 청자를 중심으로 마치 오케스트라가 360도 회전하면서, 사방에서 연주하는 듯한 신비로운 착각을 일으킨다. 첼로의 저음이 들리다가도, 이어서 바로 오른쪽에서 바이올린 현으로 커는 비브라토의 섬세한 떨림이 얼굴의 숨털

을 스치듯 흘러간다. 스타카토의 격렬한 피치음, 플루트의 바람결 소리, 발밑으로 전달되는 비트를 느끼면 온 세상이 온통 나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것만 같다.

어떻게 음악을 ‘공간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지 스타트업 기업 ‘폴리곤’을 창립한 음악 및 테크놀로지 기업이 중 한 명인 아담 니콜라스에게 물었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원더프루트 폴리곤 무대에 오를 예정인 뮤지션들은 미리 폴리곤 레코드 스튜디오에 와서 사운드 엔지니어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작업한다고. 종류별로 음악을 분류한 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 일반적인 스피커가 아니라 아래와 위로 소리가 360도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즉 관객이 경험할 사운드 스케이프(소리의 ‘사운드’와 풍경의 ‘스케이프’를 합친 말)를 설계한다. 기획자인 필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었다. 최첨단 기술과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협업해서 관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하는 것은 기획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니까.

폴리곤 극장을 이루는 골격은 놀랍게도 왼쪽 오른쪽이 아닌 공간에 적용한 3면체 음악이었다. 낮에는 대나무가 늘어뜨린 이파리가 바람과 협업해 자연의 음악을 빚어냈고, 해가 지고 열대의 밤이 찾아오면 레이저 광선과 천연 향이 또 다른 환상적인 빛을 내고 오감을 자극한다.



- 1 에이브 로저스가 디자인한 '에코 빌리지' 야외 공연장 관객석에 설치한 치앙마이 지방의 양산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있다.
- 2 폴리곤 공연장 무대에 선 비스벤슨. 그는 전자음악의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불리며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덴마크 뮤지션이다.
- 3 원더프루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태양의 무대'에서 에시드 파울리의 공연을 즐기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 4 야자수와 농장 그리고 작은 숲에 둘러싸인 폴리곤 공연장의 해 질 녘 풍경.

자연 친화적인 축제를 디자인하다

축제의 공간에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태국의 바닷가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 대나무로 만든 양파 모양의 휴식 공간 '배싱 하우스Bathing House'가 멋스럽다. 물에 떠 있는 이 쉼터에서 낮잠을 자거나 수영할 수도 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에 등장할 법한 체크무늬 쿠션으로 꾸민 글램핑 캠프, 작가가 만든 자연이나 새의 소리를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소리 장치, 그림자 인형극을 설치한 소극장과 레이저쇼를 펼치는 작은 숲도 마련했다.

이번 축제의 공간 디자인을 총괄 디렉팅한 에이브 로저스는 "이번 축제의 공간과 무대를 만들 때 땅을 밟는 '랜드 스케이핑'의 개념에 충신했다"라고 말한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을 지닌 크리에이치 빌리지는 하늘에서 보면 생물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지형을 조각해서 눈과 귀와 손을 만들었고, 그 공간의 귀에는 음악 무대를, 손에는 손으로 만지는 프로그램을 펼쳐냈어요."

에이브가 디자인한 원더프루트의 퍼포먼스 공간을 드론을 띄워 살펴보면 인간·휴식·자연에서 온 친환경적인 재료들이 환상적이고도 위트 있게 어우러져 있다. 대나무 시소와 흙 미끄럼틀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자연스레 이 공원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된다. '손'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폐플라스틱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스스 플라스틱'의 연장 세트를 통해 친환경 생활에 대해 배운다.

야외무대 관람석에는 재활용 천으로 파라솔을 제작해 설치했다. 한낮의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 아래서 야외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성찬의 극장'에서는 마치 원형극장을 상징하는 듯한 원탁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식탁에는 한 번에 25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데, 매일 밤 셰프가 제공하는 다양한 태국 요리가 원탁에 오른다. 이 모든 삶의 행동 자체가 퍼포먼스인 것이다.

축제가 열린 나흘 동안 아시아 즉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에서 온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참가했다. 이번 축제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창의적인 경험'을 체득한 여행자들이 가슴에 담은 감동은 앞으로 더 큰 변화와 창작의 씨앗을 틔울 것이다. 한국이 이번 원더프루트 페스티벌에서 발견한 지속 가능하고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 연출과 접목해 좀 더 폭넓은 스펙트럼의 퍼포먼스를 펼친다면 세계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나아가 나물 같은 약용식물을 요리한 음식, 참선과 음양오행을 이용한 의술, 천년의 도료라고 알려진 옷칠이나 조개의 자개와 같은 한국의 친환경적 요소에 예술적 인프라를 융합하면, 한국적이고도 국제적인 페스티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승민 큐레이터. 2016 직지코리아페스티벌에서 핵심 주제를 다루는 전시회를 디렉팅했으며, 당시 전시 공간 디자인을 에이브 로저스에게 의뢰해 협업했다. 현재 영국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스카아트 큐레이션 전문 리서치 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큐레이션을 펼친다.



이현정, 달항아리, CERAMIC, 360X370X350(H)MM, 2019

개성으로 우뚝한 거인 이현정의 달항아리

조선 시대의 달항아리는 영원한 고전 같은 것이다.

그 안에 담긴 깊은 미감과 철학, 자연관과 세계관은 수많은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현정의 달항아리는 그 결과물 중에서도 가장 자신만만하게 당당한 기세와 오라를 뿜어낸다.

10여 년 전이었다, 달항아리를 깊이 접한 때가. 당시 나는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잡지에서 문화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건축가든, 안무가든, 사상가든 누구를 만나도 진정 근사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한국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가 기 소르망을 인터뷰하며 위 질문을 했다. 그는 몇 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 최고의 보물은 달항아리”라고 언급했다. “달항아리를 보고 있으면 잡념이 모두 사라진다. 그저 몰입해서 보게 된다”라고 첨언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찬양인가. 온갖 잡념으로 들끓는 우리의 머릿속을 백지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자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하동문화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평사리 최창관택 일원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대청마루에 앉아 저 아래로 펼쳐진

평야와 지리산 자락을 보고 있으니 머릿속이 마법처럼 개운해졌다. 어떤 잡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듯 위대한 자연의 힘을, 높이 35~50센티미터의 항아리가 똑같이 발휘할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그저 무심한 큰 덩어리

그때부터 달항아리는 꼭 한 점 집에 들여놓고 싶은 열애의 대상이 됐다. 그 뒤로도 달항아리를 아끼고 찬양하는 수많은 예술가와 문화 애호가들을 만났다. 달항아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힘과 매력을 던지시 건넸다. 지난주에는 조선백자의 미감을 가장 현대적으로 보여준다는 도예가 이기조 선생을 만나 달항아리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그가 말했다. “조선 시대 달항아리는 임금에게까지 올라가는 진상품이었다. 그런 대단



한 물건의 외양을 보자면 한쪽이 기우뚱하거나 삐뚤름한데 그것을 도공도, 검사관도, 심지어 임금마저 ‘어, 이거 멋진데?’ 하고 말한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다. 달항아리는 조선 시대 최고의 미적 수준이나 철학에도 연결되는 무심한 큰 덩어리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듯 견고한 오라Aura를 사랑하는 달항아리는 많은 작가에 의해 수없이 변주됐다. 결이 고운 순백의 우주, 텅 빈 듯 꽉 찬 미의 세계는 그런 변주에서도 심지어처럼 굳건했다.

그러다 청담동에 새로 개관한 갤러리 오 스케이에서 이현정 작가의 달항아리를 봤다. 충격적이었다. 그의 달항아리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또 다른 우주였다. 그곳에서 천체는 자유분방해 보였다. 기우뚱 퍼지듯 앉아 있고, 얼굴 한가운데 가로로 깊은 흉터가 나 있고, 금배지를 단 모습이라니. 달항아리를 사람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 모습이 흡사 각자의 개성으로 당당한 거인 같았다. 성주신 같은 존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도예가이면서 조각가이고, 조각가이면서 설치미술가이기도 한 이현정 작가를 나는 이 시대 최고의 예술가 중 한 명이라 생각한다. 재료와 사상을 갖고 노는 경지에 이르렀을까. 세라믹과 콘크리트로 테이블을 만들고, 나무와 도자기로 커다란 집까지 만들어 선보이는 그에게 질서와 규칙은 그저 가뿐히 뛰어넘고 마는 낮은 허들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미감을 재치 있게 보여준다. 그가 만든 동물상을 한번 보라. 도자기로 만든 호랑이는 한쪽 입꼬리가 싱긋 올라가 있다. 교과서에서 봤던, 민화 속 호랑이의 개구장이 같은 미소가 아닌가. 미술사학자들이 ‘해학’이라 통칭했던.

기존 질서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괴짜’의 여유

노먼 포스터·수보드 굽타·제임스 터렐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이현정 작가는 공공연하게 말해 왔다. “일본의 예술은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려 하고 중국은 자연보다 큰 존재감의 무엇을 만들어내려 한다. 한국은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달항아리가 대표적

이다. 완벽한 원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확 던져버리는 감성이 있다. 그 지점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그는 “표면적으로 완벽한 달항아리의 미를 추구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한다.

무언가를 반복 재생산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는 ‘이러면 어때, 또 저러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작업한다. 달항아리는 그 자체로 ‘고수의 여유’. 그런 여유와 배짱, 자신만만함과 배포가 만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와 오라를 만들어냈다.

좋은 예술은 화수분처럼 오랜 시간 계속해서 관람객에게 영감을 준다. 상상력을 던져주지 못하는 예술은 유효기간이 짧다. 그런 점에서 달항아리는 최고의 예술이라 할 만하다. 그 순백의 몸체에 웅축된 세계는 한편에서 사람의 머릿속을 비우고, 또 한편에서 무심의 경지를 느끼게 하며, 또 한편에서는 자유분방한 예술을 자극한다.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입체적이다. 커다란 두 개의 사발을 따로 만들어 합체하는데 그렇게 결합한 두 개의 몸은 1,25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며 비로소 하나의 몸체로 완성된다. 나는 그 과정 자체가 ‘우주적’이라고 생각한다. 흙의 밀도와 유약의 두께, 가마 속 압력과 중력 등 수많은 창작 요소가 온 힘을 합쳐 만들어낸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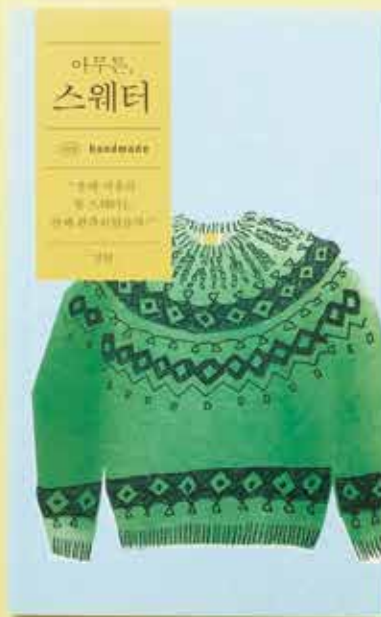
근사하고 멋진 달항아리 하나 갖고 싶어 이 작가, 저 작가 전시를 찾아가고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현정 작가의 작품이 강력한 후보로 혹 들어왔다. 기존에 봐오던 것들과 전혀 다른 미감인데 무작정 끌린다. 오토바이도 잘 타는 우등생처럼 거침없고, 세련된 풍모가 은근하고 짜릿한 쾌감을 준다. 권대섭 작가나 이기조 작가의 달항아리와 이현정 작가의 달항아리를 나란히 붙여놓아도 참으로 멋진 그림이 될 것 같다.

글 — 정성갑 월간지 ‘럭셔리’와 네이버 디자인프레스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했다. 그림과 사진, 공예품을 유독 사랑한다. ‘근사한 일상’과 ‘생활의 재미’를 키워드로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으며 남다른 예술과 이벤트를 하나씩 소개하는 한 점 플랫폼 ‘클립CLIP’을 운영한다.

사진 — 갤러리 오 스케이 · 정성갑

사랑스러운 양말 예찬론 구달 '아무튼, 양말'

단순한 양말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덕질의 이야기다. 덕질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이라면 양말을 빼고 자신의 장르를 넣어서 읽어보라.



한글을 배우고 나서도 한참 동안 ‘양말’과 ‘양발’을 혼동했다. 어차피 양말에 썩우는 겹테기 같은 건데 뭐. 그토록 나는 양말에 무심했다.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가 가게 앞 노점에서 마주친 검은색 발목양말 열 켤레. 책 사러 갔다가 대형 서점 기획 매대에서 칙칙한 색의 면양말 열 켤레(그것도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 인터넷 쇼핑몰 베스트 판매 목록에 양말이 올라와 있으면 세일하나 보다 하며 또 열 켤레. 짝 맞추기 힘들니 몽땅 같은 색으로. 그런 식으로 화장실 톨휴지 채우듯 채운 양말 서랍 하나가 내가 가진 전부다. 여름이 되어 샌들로 바꿔 신으면 양말을 빨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 그 정도가 내가 양말에 대해서 갖는 감상의 거의 전부랄까.

그런데도 크게 공감하며 읽었다. 이것은 덕질의 이야기다. 덕질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이라면 양말을 빼고 자신의 장르를 넣어서 읽어보라. 양말은 생활필수품이지만 덕질하는 순간 사치품으로 넘어간다. “양말이 88켤레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며,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떠올렸다. 얼마 전에 인터넷 벼룩시장에서 거래 물품을 놓고 채팅하던 판매자가 말했다. “제 거래인 중 젤 특이하신 것 같아여.” 내가 그것을 왜 사려고 하는지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냥 웃고 말았다.

그럼에도 양말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니 저자의 내공이 대단하겠구나 싶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달까. 어느 날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양말 브랜드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여한다. 소유하고 있는 그 브랜드 양말 개수로 순위를 매겨 선물을 증정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가진 것은 25켤레였다. 1등이 아니면 20등 내이라도 들겠지. 하지만 1등은 169켤레였고, 저자는 20등 내에도 들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우물안 개구리, 아니, 우물 안 지네였다. 세상은 넓고 지네는 많았다. 발 88개는 지네가 아니라 그냥 송충이였다.”**

하지만 그런 현실 판단은 저자의 덕질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양말 개수가 세 자릿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한다.

고수들이 난립한다 해도 양말은 어쨌든 생필품.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양말을 신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기도 단추를 끼우는 법을 배우기 전에 양말 신는 법부터 배운다. 그러다 보니 양말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교복을 입으며 복장 검사를 당하던 순간, 직장에 다니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순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모든 순간에 저자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양말을 신고 있다.

교복 아래 검은 스타킹과 흰 양말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착용을 금지당한 학생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자는 종종 ‘컴퓨터 사인펜 다리’로 나선다. “나는 나의 다리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저자의 일갈은 통쾌하다. 퇴근길에 일부러 한 정거장 걸어가며 거리 노점에 진열된 온갖 캐릭터 양말을 사는 것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직장인의 일상은 고단하다. 프리랜서가 된 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는 날은 예쁜 양말을 신을 가치가 없는 날이라 여기는 저자의 마음은 쓸쓸하다. 그리고 그 모든 날, 저자는 예쁜 양말로 양발을 감싸며 위안을 얻는다.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며 저자는 ‘양말은 누가 빼는가’로 우리 삶을 가늠한다. 집안 노동의 대부분을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고단한 노동 끝에 돌아와 쉬는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역할 분담을 강요할 수 없는 마음. 각각의 삶의 결을 찬찬히 쓰다듬으며 살펴보는 마음이 양말의 레이스처럼 섬세하다.

저자는 자신이 가진 양말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자조하며 자신을 ‘지네’라 칭하지만, 결국 지네는 자신만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처음 세어보았을 때는 생각 없이 벗어 던지는 양말이 생각보다 많다는 데 깜짝 놀랐다. 나만 지네인 줄 알았는데, 온 식구가 지네였다. 다들 분주하게 두 발을 움직이며 살고 있었다.”** 발 동동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양말은 어떤 의미일까. 매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다독 다독 위로하고 보호해 주었구나, 새삼 깨닫는다. 더구나 싸고 예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가 없다. 양말이 다시 보인다.

같이 곁들이면 좋을 책

‘아무튼, 스웨터’(김현, 제철소, 2017)는 9시까지 출근하고, 18시가 되면 퇴근하는 생활형 시인 김현이 써 내려간 책이다. 그는 책에서 먼저 스웨터의 종류로 말문을 열고, 기능을 매개로 삶을 노래한다. ‘스웨터의 발성’을 주제로 어느 한 겨울밤 낭독회를 말하는 식이다. ‘아무튼, 스웨터’를 가장 멋지게 입는 방법은 뭘까. 시인이 애써 짤 언어의 털실을 술술 풀어 나만의 스웨터를 짜보는 것! 아무튼, 스웨터니까.

글 — 박사 복 칼럼니스트.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과 문화를 소개해왔다.

저서로 ‘가문다는 것’ 등이 있다.

사진 — 김재현 눈픽쳐스 스튜디오

쓰개 작품 — 최고운(남색 세로 줄무늬 양말) · 이정연(주황색 스웨터)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세요

관객음악학교

아마추어 관현악단 5기

참가자 모집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团员들에게 직접 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악 관현악곡을 관현악 편성으로 연주해보는 특별한 기회!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모집기간 2019년 9월 23일-2020년 1월 31일

운영기간 2020년 3월-2020년 6월
(매주 화·목 19-21시, 20회)

장소 국립극장 내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프로그램 구성 ·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지휘자와 합주
· 국립국악관현악단团员의 파트 연습 및 지도
· 관현악실, 악보 등 연습 환경 제공

발표회 2020년 6월 27일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

문의 nok2019@ntok.go.kr | 02)2280-4133

극장을 나누다

72

예술배움

박물관에서
공연을 체험하세요

74

공연예술을 전시하다

근대 극장의 풍경,
그리고 기생

76

미르 학습지

「미르」를 풀어보세요

박물관에서 공연을 체험하세요

조명과 무대, 음악과 춤이 있는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세계
‘공연’. 공연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공연에
술박물관의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에 주목할 것.
가상 인물들을 따라 공연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으로 떠나보자.

내가 만든 무대, 상상해 봐요! 무대디자인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 세아 씨는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함께할 특별한 체험을 찾던 중, 공연예술박물관 ‘무대디자인’ 전 전시연계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용하고, 근처에 위치한 덕수궁과 교보문고까지 들를 계획이다. 세아 씨와 아이들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내려 ‘무대디자인’전이 열리는 배재학당역사박물관으로 향한다. 첫 번째 코스는 전시 관람. 다양한 무대디자인을 감상하며 내가 참여할 무대디자인을 상상해 본다. 두 번째 코스는 체험 프로그램. 1월 첫 주와 둘째 주는 무대 작화를 배운다. 세아 씨의 자녀들은 전시에서 만난 친구들과 한 팀이 돼 작화 디자인을 고민하고 작화 기법을 배워 무대 배경을 그린다. 무대 배경 작화를 마치면 스텐실 기법으로 고무신을 낚게 꾸미는 시간. 개성을 가득 담아 만든 고무신을 한 짝씩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셋째 주 수업의 주제는 ‘무대모형’이다. 무대모형 틀에 직접 배경막을 오려서 붙인다. 뽀뽀뽀한 숨씨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색다른 배경을 달고 무대장치의 변화를 이해한다. 배경막이 완성되면 역할을 나누어 작품을 설명한다. 2월 수업은 매주 주제가 다르다. 첫 번째 주제는 창극 ‘심청전’의 장면을 상상하며 무대와 소품을 스케치하는 것. 초가집 앞 감나무를 그리고, 심봉사 사가 쓰는 소반·술가락을 그려본다. 용궁 장면은 계수나무와 선녀들의 부채, 바다 생물을 그리며 상상력을 펼친다. 다채로운 그림을 보며 친구들과 서로 칭찬하고 만족하며 수업을 마친다. 두 번째 주제는 ‘무대 도면’. 무대를 재는 단위와 치수를 이해하고 처음 사용해 보는 삼각 모양 스케일 자의 신기한 척도를 확인하며 직접 도형을 그려 무대장치의 평면도를 완성한다. 조금은 어려웠지만 재밌었던 도면 수업. 아이들은 엄청난 것을 해낸 기분이 든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무대디자인

일시 1월 4일 ~ 2월 29일(매주 토요일)
장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세미나실
가격 1만 원
대상 초 3~6학년
문의 02-2280-5804

공연교실

일시 1월 7일(화) ~ 1월 11일(토)
장소 공연예술박물관
가격 1만 원
대상 초 3~5학년
문의 02-2280-5804

무대제작 프로젝트

일시 1월 14일(화) ~ 17일(금)
장소 공연예술박물관 별오름극장
가격 1만 원
대상 중학생
문의 02-2280-5806



배우가 돼 무대를 누비다 공연교실

평소 공연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3학년 소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배우로 변신해 직접 공연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공연교실'에 참가하기로 한 것.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소이와 친구들은 배우가 돼 발성도 익히고, 춤·노래를 배우며 마지막 날 발표회를 연다. 공연의 주제는 전래동화 '멸치의 꿈'. 동해마을에 사는 부자 멸치 '백부자'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서해마을의 유명한 해몽가 망둑어 '유명해'를 데려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첫째 날은 역할을 정하고, 대본을 연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공연예술박물관에 도착해 상설전시실을 둘러본 후, 설레는 마음으로 '멸치의 꿈' 대본을 살펴본다. 드디어 기다리던 역할을 정하는 시간! 제비뽑기를 통해 역할이 정해지면 대본 연습에 돌입한다. 둘째 날엔 본격적으로 대본을 외우며 역할에 어울리는 동작을 배운다. 백부자 역할을 맡은 소이는 거만하게, 간죽거리는 새우 역할을 맡은 친구는 장난스럽게 연기한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무대 동선을 익힌다. 등장과 퇴장은 어떻게 하는지, 무대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기할 때는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 서로 약속한다. 드디어 공연 의상을 입어보는 날. 넷째 날이 되면 각자 역할에 맞는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 소이와 친구들은 어느새 하나의 팀이 돼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회를 올린다. 생애 처음 해본 분장은 무섭기도 신기하기도 하다. 어떤 친구는 너무 떨려서 울음을 터뜨리고, 어떤 친구는 떠들다가 혼나 수업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분장이 마음에 들어서 절대 지우지 않겠다는 친구도 있다. 짝막한 발표회가 끝나면 소이는 평생 추억할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공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무대제작 프로젝트

무엇이든 만드는 걸 좋아하는 중학생 유민이는 미술가가 되는 게 꿈이다. 특히 무대 세트의 제작 과정, 무대미술가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 이번 겨울 유민이는 '무대제작 프로젝트'로 무대미술가와 무대 스태프가 하는 일을 체험해 볼 생각이다. 1월 14일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동화 '헨젤과 그레텔' 속 무대세트를 직접 만들고 시연해 본다. 첫째 날은 무대 세트의 기능과 제작 과정을 알아보고, 작품과 장면에 대해 분석한다. 모둠을 나누어 각자 제작할 세트를 정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기본 스케치를 잡는다. 그러곤 채색 투시도와 작화 도면을 제작하며 무대 세트 제작의 첫걸음을 뗀다. 모든 수업은 모둠별 결과물 공유로 마무리한다.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 둘째 날은 공연예술박물관에 전시된 무대모형을 관람하고, 시연 공간인 별오름극장을 축소한 틀에 세트 모형을 제작한다. 처음 만들어 서툴 수밖에 없지만 어제 만든 디자인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면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상승한다. 셋째 날은 제작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재료의 특성과 효과를 알아가며 무대 세트를 완성한다. 구멍만 뚫려 있던 슬라이딩 벽체는 장면에 따라 창문이 됐다가 창살이 있는 감옥으로 변신할 준비를 완료한다. 마지막 넷째 날 무대 세트 설치가 바로 이어진다. 설치가 끝나면, 무대감독과 스태프로 각자 역할을 맡아 세트 전환을 시연한다. 무대감독의 사인에 따라 약속한 타이밍에 맞춰 세트를 전환해 보는 짜릿한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이들의 수고를 직접 느껴본다. 무대미술가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무대 세트를 제작하면서 공연예술의 매력을 한층 더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 — 한빛, 이수윤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전시연계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근대 극장의 풍경, 그리고 기생

개화기~근대 공연예술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상설전시실은 국내 근·현대 공연 역사 10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공연 자료와 실제 유품을 보관해 놓은 곳이다. 상설 전시실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뉜다. 한국 공연예술사의 흐름을 시대별로 알 수 있는 공연예술사 전시 공간과 무대의상부터 미니어처·무대디자인 등 공연을 이루는 요소를 주제별로 파악하는 공연주제 전시 공간이다. 한국 공연예술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꽃을 피운 순간, 그리고 숲을 이루는 과정까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공연예술을 전시하다’를 통해 상설전시실의 전시 공간을 차례로 관람해 보고자 한다.



공연예술박물관

공연예술박물관은 약 28만 점의 공연예술 자료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archive.ntok.go.kr)에서 누구나 쉽게 자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며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을 전시하다'에서는 공연예술박물관 상설전시실 중 일부 공간을 골라 지면에 차례로 소개합니다.

문의 공연예술자료실(방문 이용)

02-2280-5834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온라인 이용)

02-2280-5805



초창기 극장들

이번에 소개할 것은 개화기부터 근대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로, 이 시기 공연 예술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공연예술이 펼쳐진 초창기 극장과 기생 조합인 권번과 기생 엽서 유물이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서구 근대 문화의 수용으로 극장劇場이라는 공연 공간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극장의 등장으로 당시 전통 공연 양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로 열린 공간에서 공연했던 전통 공연 예술인들이 실내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됐다. 또한 귀족예술과 서민예술 모두 극장 무대에서 이루어져 두 예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으며, 서양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새롭다는 의미의 '신新'자를 붙인 신극·신민요·신무용과 같은 근대 공연예술 형식이 만들어졌다. 이 당시의 극장들은 공연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수용해 영화관의 역할도 담당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시 공간에서 당시 공연장의 모습과 함께 전시 그래픽 패널 Graphic Panel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협률사와 연극 전용 극장인 동양극장의 모습을 사진 자료로 만나볼 수 있다. 동양극장은 전통 공연예술인 한성준을 주축으로 한 '조선성악연구회'의 주 활동 공간으로, 창극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부민관의 경우 1950년 국립극장이 창설돼 6·25전쟁이 나기 전까지 국립극단의 '원술랑'과 '뇌우'가 공연된 곳으로 현재에도 건물이 남아 있어 서울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초창기 부민관 사진을 보면 현재 시청 주변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이외에도 1929년 조선박람회장의 연예관이나 남산 야외음악당 등의 사진 자료를 볼 수 있다.

사라진 종합예술인 '기생'과 그들의 공연

전통을 이어간 종합예술인으로서의 기생의 모습이 담긴 엽서 17점도 전시돼 있다. 기생 엽서는 전시를 준비하던 2009년 당시 을지로의 골동품 상가를 돌며 직접 구입한 자료다. 이 엽서를 통해서 검무·북춤·선유락 등 당시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조선왕조가 무너지던 시대에 기생들은 기생 조합인 권번을 통해 궁중 공연예술의 교육과 공연을 담당했다. 특히 대중은 극장 공간에서 기생의 공연을 통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궁중 예술을 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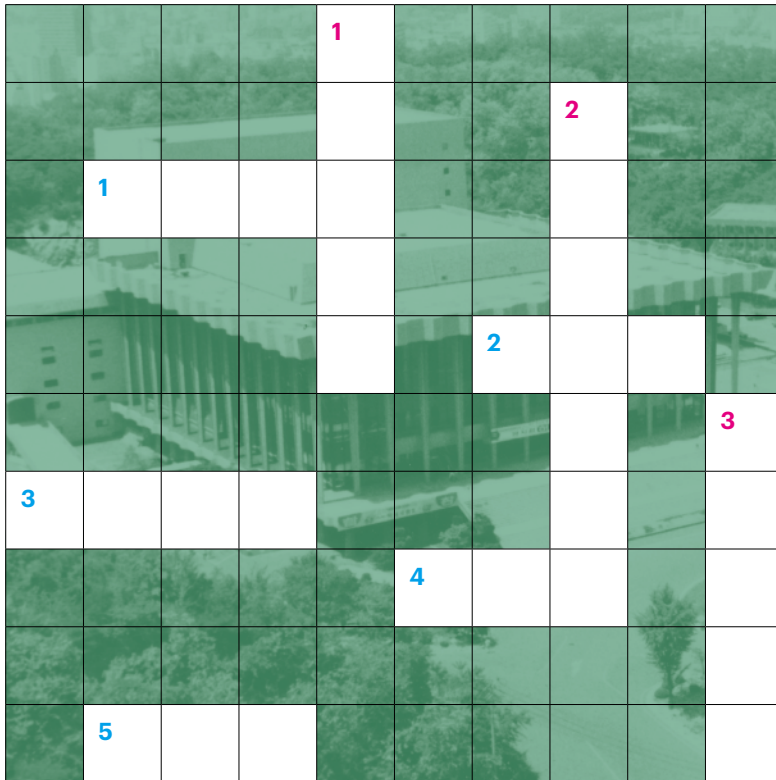
기생이 담당한 공연 레퍼토리는 주로 전통 위주였으나, 레뷰 댄스 Revue Dance와 같은 서구식 공연예술도 흡수해 다채로운 공연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기생은 뛰어난 가무 솜씨로 전문 예술가이자 스타로 각광받았다. 1927년 2월 16일 우리나라에 경성방송국이 개국해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개시했는데, 1930년대 말 라디오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이왕직악부, 판소리 명창들과 기생들이 생방송에 출현하게 되자 당시 공연이 대중의 삶 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게 됐다. 1934년 평양기생 선우일선은 음반회사 폴리도르 Polydor에서 '꽃을 잡고'라는 노래로 음반을 취입하고 단번에 스타 가수가 됐다. 전시장에 마련된 유성기 작동 모형을 통해 선우일선의 '능수버들' 음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장에 마련된 검색대에서 조선정악전집소, 조선배우학교와 같은 공연예술 교육기관과 판소리의 전승과 근대 5명창, 산조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글 — 하울란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미르」를 풀어보세요

「미르」를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낱말 퀴즈를 풀어보는 것!

2020년1월호 「미르」를 읽고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풀어보세요. 독자엽서에 답을 기재해 보내주신 분들 중
정답을 맞히신 세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가로 낱말

- 1 떠들석한 길놀이와 고사, 본놀이를 거쳐 배우와 관객이 하나되는 뒤풀이로 이어진다. '지금, 여기'를 비틀어 구경꾼의 흥을 돋우면서도 해학과 풍자를 통해 인간사의 애환을 풀어내는 것이 포인트. 이 장르의 이름은?
- 2 국립극장이 첫 공연으로 올린 작품. 신라 시대 김유신의 아들 원술의 이야기다. 공연1주일 만에5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흥행한 이 작품은?
- 3 눈처럼 흰 바탕색과 둥근 형태가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신년호에서 이현정 작가가 보여준 이 현대적 미술품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 4 1950년 국립극장 개관 후 6·25전쟁이 나기 전까지 '원술량'과 '뇌우' 등이 공연된 곳으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 5 국립극장이 국내 공공극장으로는 처음으로 '레퍼토리시즌제'란 명칭의 시즌제를 도입한 이후 개막작으로 올린 공연이다.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의 작품으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세로 낱말

- 1 2020년1월 2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시작한 공연으로, 대장부 기질을 지닌 몸종 오목이 문제가 있는 한량 이춘풍을 남편으로 맞이해 그를 호탕하게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8.7퍼센트라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 공연의 이름은?
- 2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 전문 박물관으로 2019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공연예술 자료의 유실을 막고 수집·전시·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곳은?
- 3 1973년 개관 후, 한국 공연예술의 본거지로 수많은 관객을 만나온 국립극장의 대표 공연장이다. 대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됐다. 이 공연장은?

「미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엽서와 이메일(magazine@ntok.go.kr)은 물론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에 대한 감상이나 국립극장과 「미르」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보내주세요.글의 분량이나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 **당첨자 연락을 위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독자의견 혹은 구독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내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국립무용단 '설·비람'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01.01~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제40370호

국립
극장 **미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월간「미르」담당자 앞

※국립극장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예 ☐ 아니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월간「미르」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요청 시까지 유지됩니다.

0	4	6	2	1
---	---	---	---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월호 독자의견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1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02 「미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월호 「「미르」를 풀어보세요」 답

				1					
							2		
	1								
						2			
									3
3									
					4				
	5								

손 안에 극장을 한가득!

공연 제작과정부터 무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국립극장 N통이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2020.1.16.(목) 20:00
롯데콘서트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예술감독·지휘 김성진

관람료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예매 국립극장 02-2280-4114 | 인터파크 1544-1555 | 롯데콘서트홀 1544-7744